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R 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62 1982년3월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rch 3,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 장학의 밤에서 나토마양은 청중 중 강공선이사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내 아랍식 두건을 씌우고 주위를 경쾌한 스탭으로 돌고 있다.

◇ 주위를 돌던 나토마양이 짓궂게 가슴을 강이사 머리에 비비고 있다.

◇힛·송 「밤안개」를 부르는 가수 현미.

◇ 앉아서 벨리·댄스 율동을 보이고 있다.

◇밥·뢰 신민당 「온」주당수

김대중씨등에 감형 무기에서 20년으로

◇김대중 씨

(서울 2일=연합)무기징역형을 받은 김대중씨를비롯한 정치범및 일반 죄수 2,863명이 3.1절을 맞아특사내지 감형조처를 받았다.

이광표문공장관은 2일 무기수김대중은 20년형 으로, 20년형을 받고 있던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은10년형으로 감형됐다고 발표했다.

감형자중에는 광주사건관련 17명과 김대중 측근 13명및 80년도 80년도 사북탄광 난동사건 주동자들도 있다.

이문영교수는 15년에서 8년으로, 문익환 목사는 10년에서 5년, 전국회의원 김상현씨는 7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고, 예춘호씨는석방됐다.

김대중사건과 관련, 현재 5명이 복역중이다.

이대사관저서 3.1절기념식

(오타와 이태은 지국장) 지난1일저녁8시 오타와의 이규현대사관저에 교민들 다수 참석으로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이대사가 전대통령이 발표한 통일방안을 풀이한뒤 2편의 기록영화 「트루도수상 방한기」, 「81년 국군의날 행사」의 상영이 있었으며, 칵테일 파티도 있었다.

장학의 밤 만원사례

밥·뢰등 600명 참석

— 교민 자진협조 가속화 —

1인당 30달러의 「장학의 밤」은 만원사례였다.

27일밤 토론토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에서 열린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쇼·디너·댄싱의 밤에는 약6백명의 교민이 입장, 늦게 온 교민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당황할 정도였다.

작년에는 약 5백명이 입장했다.

이날 캐네디안 인사로는 지난달 온타리오주 신민당(NDP) 당수로 선출된 밥·뢰(Bob Roe)씨가 참석했다.

정치적 연설은 안하기로 하고 초청된 뢰씨는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최근한국인들이 이민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캐네디언들과 친선관계를 가진 것은 반가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학생선발위원인 토론토대학교동양학부의 몰튼·스미스 교수는 " 인도인들은 숫적으로 한국인보다훨씬 많으나 장학기금은 한푼도 모으지 못한 것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구상회 이사장은"장학재단 이사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사장은 할 일이 없을 정도다"라는 뜻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영일전 이사장에게 감사패, 문인식 이사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고려보석 김무호 사장은 정치지망생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으로 금일봉을 희사했다. 김사장은 "우리사회에는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사업가도 많으나 정치가가 없다. 우리의 권익을 적극 추구할 정치가가 이제는 등장할 때"라고 말했다.

작년 장학생 김광태씨(토론토대학)는 장학생을 대표해서 소감을 말했다.

김홍량씨에 이어 백용빈씨가 2부사회를 맡았고, "밤안개"를 부른 가수 현미, 노래와 코메디의 양철씨가 최영호·박홍씨등 5인조악단과 함께 흥겨운 노래와 만담을 선사,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노래와 춤의 사이에 복권을 추첨, 쌀등 수많은상품중 「대영백과사전」은 강창흡씨, 서울왕복 항공권은 이기훈씨에게 돌아갔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벨리·댄스를 추었던 프린세스·나토마양은 강공선 이사를 끌어내 즉흥 2인조쇼를 연출,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의 수지결산은 3일 발표된다.

3만여 달러의 기금을확보, 이제까지 고국학생4명, 교포 18명에게 장학금을준 장학재단은 "성공적인 단체가 되면 교민들이 자진해서 앞다투어 더욱 협조한다"는 사실의 본보기로 정평있다.

문씨 체포소식 연방경찰서 전해

재작년 9월 친지 방문차 이북에 다녀온 토론토의의사 황대연씨는 1일 "약10일전 연방경찰로 부터 문지식씨가 체포됐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서 밀수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토론토교포 문씨는 전대통령암살음모사건에 관련된 주요인물중 하나로 부각됐으나 2일 이후 이같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구속된 「야노버」및 최중화와친분이 있다.

◇황대연씨

황씨는 또한 "토론토 에는 북한다녀온 약 20명이 정기적으로 모이며 나도그 모임에 나오라는 종용을서너번 받았으나 참석한적은 없다"고 말하고 "O원진, 정모씨등도 그 멤버인줄안다"고 덧붙였다.

최중화씨 부인 마스코리아 진

최중화씨의 부인은 수년전 캐나다 미인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C양으로 밝혀졌다. C양은 서울 본선에도 다녀왔다. 최와 C양은 1녀를 두었다.

최중화 송환하라 한국성명문 발표

(서울 1일=연합)천관우 통일원중앙위원회위원장은 1일 북한의 전대통령 암살시도를 비난, 이번 음모의 주모자 최중화를 즉각 캐나다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중화는 캐나다 경찰의 조사를 피해 북한으로 도주,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원로급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인 천씨는 성명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 국내와 세계적으로 한창 무르익을 때 캐나다와 미국, 유럽 국가 당국에 의해 밝혀진 암살음모와, 북한이 이 음모를 사주하였다는 증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광표문공장관도 「최」의 인도를 북한에 요구했었다.

주간女性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특 별 봉 사 이 율 (SPECIAL SALE)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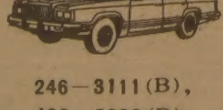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학 생 모 집
1982년도 제 1 학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신과
정 원 : 신과40명
자 격 : 고졸이상인 세례교인에 한함.
수 업 료 : 신과 $60
수업일시 : (예년과 달리)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 1시까지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3-105
개강일시 : 1982년3월13일(토)오전9시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2월20일~3월15일까지
Lee's Printing(2157 A Weston Rd. 244-2301)
기 타 : 재학생은 개강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캐나다노회직영
칼빈신학교장 : 계 화 삼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46-31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AIL LIAI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퀸시존스 5개部門휩쓸어

24회 그래미賞시상 最優秀리듬앤드 블루스賞등 受賞

最優秀노래「베티 데이비스의 눈」故레논과 요꼬엔 앨범賞

〈LA-UPI〉 리듬의 대가 퀸시·존스가 2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리듬앤드 블루스상등 5개의 상을 휩쓸었다.

24일밤 LA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그래미상시상식에서는 또 킴·칸즈가 부른「베티 데이비스의 눈」이 81년도 최우수노래로 선정되었다.

「베티 데이비스의 눈」과 겨루다가 탈락된 노래는「9시에서 5시까지」「끝없는 사랑」「아더의 노래」「우리 두사람만」등이다.

「9시에서 5시까지」는 최우수 칸트리 송으로 뽑혔으며 이 노래를 부른 달리·파톤은 최우수여성 칸트리싱거로 선정되었다.

록 그룹「더 폴리스」는「내 옆에 너무 가까이 서지말아요」로 최우수 록 그룹상을 받았다.

한편 1980년에 피살된 전 비틀 존·레논과 그의 미망인 요꼬·오노는「다블 판타시」로 최우수 앨범상을 받았다.

요꼬는 이날 6살난 아들 손을 테리고 시상식에 참석,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퀸시·존스, 킴·칸즈등의 다른 수상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5개의 상을 휩쓴 퀸시·존스가 트로피를 한아름 껴안고 있다.〈AP〉

◆최우수노래「베티 데이비스의 눈」을 부른 킴·칸즈(오른쪽).〈AP〉

◆최우수신인가수상을 받은 쉬나·이스턴.〈AP〉

◆고 존·레논과 함께 최우수앨범상을 받은 미망인 요꼬·오노와 아들 숀.〈AP〉

政府자금 파티사용은 違法으로 변상해야

〈워싱턴-AP〉 연방회계관은 내무성이 정부자금으로 파티를 연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제임스 와트 내무장관은 파티비용 4천3백달러를 즉각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관은 내무성에 배당된 기금이나 기부금등 어느것도 크리스마스파티 비용으로 사용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암살 음모단」사건을 보고

최충식(토론토교포)

◇최충식씨

지난 24일오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의심한 나머지 재방송을 듣고서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교민들이 모두 알고있는 일이지만「전두환대통령 암살 음모단」.

음모일부가 벗겨졌는데, 토론토에 있는 최홍희씨아들 최중화는 수배중이요, 매수되었던 캐네디언 암살행동대원 2명이 체포 되고 1명이 수배중이라는 경악할 내용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부교포가 북한을 넘나든다는 뉴스가 교포신문에심심치않게 오를때마다 뜻있는 교포들은 무슨 꿍꿍이가 꾸며지리라고 예견은했었지만 예상밖의 엄청난사건으로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러한 전대통령 암살음모단 수사가 6개여월에 걸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없는 캐나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 중에서도 중립국에 가깝다는 이곳 정부에의해서 일망타진 되었다는데큰 관심과 함께 노고를 치 하해야 하겠다.

그동안 북한에 있는가족을 방문하고 세계 제일의 금강산도 구경하자는 관광단 모집 광고가 모 신문에 나오면서 대한민국 녹(祿)을 먹었던 예비역 육군 소장 최홍희씨는 태권도 시범이라는 위장된 구실아래 북한을 방문했었다.

그때 북괴는 그들 일행을 국빈이상의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는데 그 이면에는 북괴의 음흉한 흉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되어 현실로 나타난것이다. 이곳 수사기관의 발표대로 최중화가 북한에도 피중이라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억류되리라 믿을때, 한번 실수로 젊은 자식의 앞날까지 망치게 한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각본은 북괴에서 짰던 것으로 이번 사건은 그에 말려든 시범케이스이다. 한편 북한을 방문했던 분들의 친지들인질로 이곳에 또 다른「음흉한 카드」를 내밀런지 예측불허의 일로 혹자는 염려하고 있으나,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분들의 각성이 촉구되며 북한방문을 자중하는 계기가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역사는 변하여도 민족은 오직 하나, 세월은 가고바뀌어도 단군의 혈통을 이어 받은 배달민족 에게는 민족이 둘이 아닌 하나인데 타의에 의한 민족분단의 뼈아픈 현실을 이대로 좌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어 전두환대통령은「1.2 제의」와「6.5 제의」를 하였고 북괴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왔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1.22제의」, 즉「통일 민주공화국」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남북한「통일헌법」을 만들자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제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에 좋은 반응과 함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북괴는 세계 여론을 외면한 투성의와 정부요인암살로 야기되는 사회혼란을 틈타 결정적인 시기에 무력 적화통일을 하겠다는야욕이 전과 동일함은 이번 사건이 또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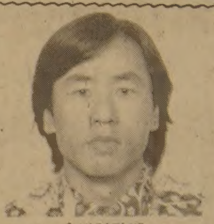
이 사건으로 우리 교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괴는 겉과 속이 다른 위장평화 공세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그들의 저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캐나다 시민권을 얻는 순간 법적으로 캐나다인과 똑같이 대우받는다 할지라도 허무맹랑한 꿈에 사로잡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극단적인 정치 테러활동, 특히 북괴식 공산주의는 이곳 정부의 주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불평없이 이질문화에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4만 교민사회에 일부 몰지각한 우리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마다 하고 38선을 넘어온 인구가 450만이나 되는 그때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은 동포들이 대다수인 이곳 교포사회이고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6천만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한곳에 모아「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데 우리 교포들은 적극 참여하리라 믿는다.

제5계절

베니스의 고객 (Venice)

장연탁(조각가)



◇장연탁씨

—필자소개 : 조각가
- ○서울미대 졸업
- ○온태리오미대 졸업
- ○개인전, 그룹전및 국제전 참가 수차
- ○캐나다조각협회 회원
- ○삼우조각연구소 개설(1981)

섹스피어의 희곡「베니스의 상인」작중 인물중 수전노 샤이록의 횡포는 지금도 우리들의 기억속에증오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리라 본다. 비록 희곡속의 풍자적 인물묘사이긴 하나 이런유의 인간상을 우리주변에서 찾아보는데 그리어렵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전노나 상인들이 아니라 더 무서운 횡포가 소위 고객이란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심찮게 상점의 현찰을 털어내고, 심지어는 귀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끔찍한 요즘의 사건들 말이다.

베니스에서 있었던 웃지못할 사건을 여기적어본다.

벽에서부터 천정에 이르기까지 온통 골동품으로장식한 골목속의 제법 아늑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한 적이 있다. 함께 동행했던 이태리 조각가와 바다 뱀장어 요리를 시켜놓고 허기진 배를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옆쪽 테이블에서 심상치 않은 언사가 오가고 있었다. 힐끗 그쪽을훑쳐보니 부부인듯한 중년의 손님이 느긋한 표정으로앉아있고, 식당주인으로 보이는 자가 얼굴이 상기 된 채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 기세는 곧 치고 받을것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나는 그 까닭을 알 수없어 나와 식사중인 친구한테 알아보았다

그의 대답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손님이 자기가 먹은 점심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데서란다. 이유인즉 그들이 해치운생선요리가 맛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래 내가 그들 앞에 놓인 접시를 살펴보니 별로 남은 것없이 텅 비어있음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곳같으면 당장 경찰이라도 부를 터인데, 어쩌된 영문인지 그런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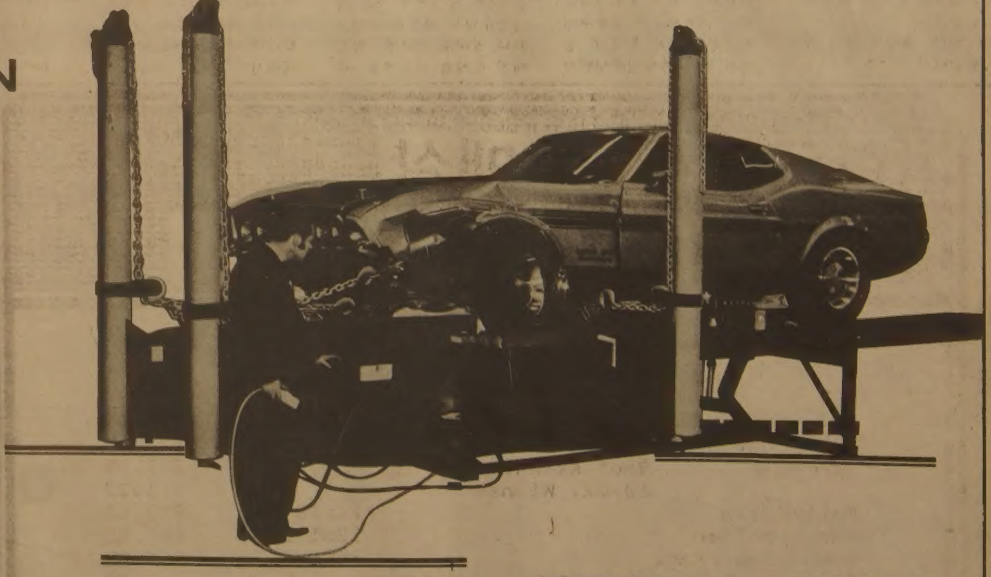
잠시뒤 이들 부부는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뜨고 있었고, 식당주인은 그들의 뒤에 대고 언성만 돋구었지. 결국 닭쫓던개의 꼴이 되고만 셈이다. 나중알고 보니 그들이 지불한 것은 단지 포도주값 뿐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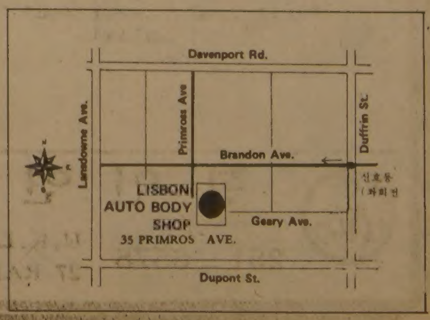
오늘날 섹스피어가 살아있어 베니스의 이 식당풍경을 그렸다면 퍽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 든다. 그리고 변호사 포오샤를 다시 등장시킨다면 이 우롱한에 대한 심판이 어떠했을까 사뭇 궁금하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교민 여러분께 특별 써비스!
수리후 문제점이 있을시 책임보증!

- A급 LICEENCED BODY MAN
- A급 LICENCED 페인터
- 사고후 보험처리
- 수리중 차대여
- TOWING 써비스
- 완전 BODY WORK
- 철저한 신용





주소 : 35 PRIMROSE AVE. TOR.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약품상식〉

신비의 식물 알로베라

부작용없고, 내장기능 도와

정효기 제공

과학문명의 고도발전에 따라 부산물로 발생하는각종공해와 현대약품들의 부작용에 시달린 의학, 약학 전문가들은 부작용없는 신비의 약 알로베라(Aloevera)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약초는 아프리카의지중해 연안과 마스카스카로스 지역및 미국 테사스주 아리조나주, 하와이, 멕시코 국경지대등 아열대및열대지방의 뜨거운 사막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전한다.

이 알로베라 품종 400여종류중 약성이 있는 알로베라는 6가지뿐이고, 선인장의 일종이면서 백합과에 속한다.

약용 알로베라에는 약성분으로 의학용어로 알로인 알로애오진, 알로애신, 에스떼르, 알로에미친, 알로대울신등이 들어 있다는것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한 약교수 Collins와 L.J. Lorenzetti가 실험, 발표했다. 그들은 아울러 이들 알로베라의 약성분들은 사람몸에 좋은 약용품임이 밝혀냈다.

최근은 "만병통치약용식품"으로 알려진 알로베라는 인체의 모든 기관에 유익만 주고,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변질도 안되는 생약제로 규명됐다.

이 알로베라의 생약제인 알로베라쥬스(Aloevera Juice)는 사용자의 고질이며 근원적인 병치료의효과를 준다고 한다. 순환계심장, 내장기능 활동을 향진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진 동맥을 연하게 해주며, 혈관에 맺힌핏덩어리를 녹여주며, 말초모세 혈관을 확장해 주므로 고혈압, 뇌혈진에 의한 중풍, 저혈압으로 고생 하는 근원적인 환자들의 치료제이며, 신경을 진정시켜 주면서 강화해 주고, 위장내 과다한 산을 중화해 주어 식욕을 증진시키는한편 소화기의 염증을 치유하여궤양된 부위에 새로운 세포막보호와 세포 부활조직을 형성하는 작용도 한다.

또한 인체의 말단부위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액즙이 닿는 부위에항생제보다 강한 살균력을나타내는 동시에 균의 독소도 분해해 버린다.

특히 알로베라 성분에서 나오는 사포나리아라는 것은 강한 알카리성 다당류로 병약하고 산패된 육체를 알카리화하는 작용이강하며, 내장기능의 위가 약한 기능에 도움을 주며, 구토증을 제거하는 작용도있거니와, 또 항암작용도 있기 때문에 20세기의 암, 그 세포형성에 항체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절망적인 상태의 위병환자나 병원 치료를 해도 증세가 사라지지 않고 아파 고생하는 사람은 이 알로베라를 사용함으로써 나아지는 것을 신비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병이 완쾌되어 건강을 찾게되니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알로베라의 신비스러운 것이 현대의학과 과학이발달한 의약품이 따라올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많은 호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정에서는 가정 상비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알로베라의 원료가 화장품, 비누, 살충제, 도료, 피혁의 염색, 공산품재조원료로 상품화된것이 많이 나와 있거니와 유명한 화장품회사마다 이 알로베라 원료가 안들어 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알로베라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생잎을 잘라 즙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생잎을 갈아서 복용하거나 날로씹어먹어도 효과가 신비롭게 나타난다고 하여 한창 붐을 타고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알로베라가 인류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임을 볼 때 알로베라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본다.

〈학생문예 : 단상〉

잠 꼬 대

이 웅 건

(토론토대학 스카보로캠퍼스 1년)

정신이 없다. 무조건 바다로 나가서 몇시간 이고 뒹굴고 싶다. 정신없이 말야. 너무 많은 것들에게서 도망다니다 보니 내 정신이 아닌 것갈다. 차들은 정신 없이 내 곁으로 달리고, 사람들도 개미떼처럼 열심히 움쥑이는데 그 중간에 나 혼자 우뚝 서 있다. 김유신장군의 동상처럼 말이야.

나는 아무 곳에도 들어맞지가 않는다. 어디를 가거나 내 자신을 볼 수가있어. 타인으로서 말이야. 모든 것이 들어맞지가 않는다. 모두 쾌쾌 묵은 포장지들로 자신들을 싸고 울퉁불퉁한 거울들을 한 두어서너개씩 가지고 있더군. 그 울퉁불퉁한 거울들에쾌쾌 묵은 포장지로 싼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좋다고 낄낄 웃어대고있어.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 멋있다고 말야.

사람들이 바다에 가고싶다는 욕망이 일어 나면 좋을텐데…. 가서 바닷물에자신들을 비춰보며 깨끗이포장지를 벗어버리고, 모랫바닥에 뒹굴며 울퉁 불퉁한 거울들을 바로 펴면 ,좋을텐데….

자신을 사회 안에 맞추면서 파묻혀 버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좋다고 서로 웃으며 계속 파묻혀 들어간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차차 진짜 자신을 버리고 가짜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며 계속 자기와 남의 울퉁불퉁한 거울들에 무섭게 비춰 보며 끊임없이 거대한 사회라는 기재 속으로 빨려 들어 가는 사람들.

◇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을것같은데… 모든것에서 도망쳐서 말야.

비오는 것이 보기에는좋더군. 유리창을 때리다 미끄러지는 빗방울들이 뭐갈았어. 영화나 시에 나오는 장면같이 말이야.

뭔가 뱃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더군.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웬지 괜히 슬프더군. 모든것이 종잡을수가 없어.

밖에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언제나 나는 공중에서 사람들을보는것 갈아. 꼭 바퀴벌레들이 움직이는것 갈더군. 누가 발로 꽉 밟아도 모를것 갈아. 모두들 끼리끼리 모여있거나 간혹 따로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자꾸 모여들려고 하더군. 괴상한목적들을 핑계로 세우면서말야.

빗방울들이 계속 떨어지고있어. 서로들 뭉치면서말이야.

밖에 펼쳐진 풍경이 멋있더군. 거리들이 조금씩 닦여지면서 말이야. 아주확 내려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글쎄…잘될지 모르겠어. 깡술이나 바가지로 퍼마시고 세상모르게 잠이나 자볼까. 그게 상책인지도 모르지.

그래 내년 이맘때나 또 생각하고 뭔가 해보자. 지금은 짝수가 너무나 없고, 모두들 버릇으로 굳어버렸다. 중국에가서 장비나 불러올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⑮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앞으로 제가 조심해서 그와의 인간적인 친교를 맺아 그를 회개시켜 보겠읍니다. 아스랑이 군인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나는 그에게 인간적인 친근감을 갖게됩니다. 오늘 그로부터 대단히 불쾌한일을 당했으나, 한편 나는 그러한 그에게 일종의 매력까지 느낍니다."

그때 나는 이상하리만치 아스랑을 회개시킬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에대한 우정같은 감정을 강렬히 느꼈다.

"나도 무슨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태오신부 정도면 능히 아스랑을 친구로 삼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가 당신의 친구가 되는날에는 그는 분명 회개하고, 이전과같은열심한 신자가 될거요. 비록 국적은 다르나 군인이었다는 같은 신분과 또 전쟁과 부상을 체험한 인생의 동지로서 당신은 아스랑에게 인간적인 접촉을 시도할수 있을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방법론적인 충고가 되겠는데, 아스랑을 방문할 때에는 오늘처럼 신부의 정장을 하지 말고, 그가 집에서 평상시 입고있는 그러한 노동복을 입고가시오. 머리도 곱게빗지말고 헝클어진 상태가좋을것이며, 또한 세수도 한 삼사일 동안 하지말고, 수염도 길러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하는것이 좋을거요. 왜냐하면 우선 차림과 모습에서 그와의 간격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친근감과 신뢰심을 갖게해야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오. 그리고 방문시간을오후4시쯤으로 하는것이 좋겠소. 왜냐하면 그것도 심리적인 것인데, 오후3시 30분경에 그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을거요. 아무리 불량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신부에게 폭악한것을 삼갈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본당신부님. 제가신학생시절 저의 지도신부님께서 방문사목에 관해서여러가지 말씀해 주신것 중에서 방금 본당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주의사항이 있었읍니다. 나만의 선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 줄수 있다는 그러한 중요한점을 저는 잊고 있었군요."

"태오신부, 아직 내 말은 끝이 안났소."

기이에 신부는 자기말을 이해하는 나에대해 만족해 하는듯한 표정으로 말을계속했다.

"아스랑을 방문하는날주머니에 과자나 쪼코렛을한 두봉지 갖고가는것을 나는 권하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에게 그 과자를 나눠주며 그들을 진정 사랑을갖고 앙부라스한 다음그애들과 한차례 장난을 하시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한사람도 없을테니까…. 그리고 아스랑에게 경칭을 쓰지말고 그가 쌍말을하면 당신도 쌍말을 쓰시오. 그와 일대일의 입장에서 같이 대하시오. 하여튼 그가 당신에게 지금 상상할수없는 쌍말을 할지모르나 절대로 신부인 당신에게 폭행은 안할거요. 우리 다른 신부들은 그의 쌍말에 우선 기가질려 그를 피하고 있구료. 당신은 군대생활을 8년이나 했다 니 그런 쌍말을 듣는데는 우리보다 훈련이 잘되어 있을거로 난 생각하고 있소."

"잘 알겠읍니다. 신부님의 여러가지 사목적인 충고는 앞으론의 제 사목활동에 크나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당신부님. 저를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 드리고 말고요. 당신이 우리본당에임명된것도 주님의 섭리인데 주님께서 당신을 은혜롭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느날 아스랑이 회개하고 착실한 신자로 되돌아온다면 나는 이성당의 본당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한것으로자부할 것입니다. 태오신부, 잘 부탁하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로 생각하고 아스랑의 문제를 맡겠읍니다. 그리고 본당신부님에게 바치는 저의 첫 순명으로 최선을 다해 이번의 아스랑건을해결해 보겠읍니다."

"본당신부의 필요없는노파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충고를 잘 따르시오. 거듭 말하지만 아스랑을방문할때 그가 평상시 착복하고있는 작업복 차림을하고, 또 대화할때에도 그가 사용하는 화법대로 하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충고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어디에선가 말하지 않았소. 「로마인에게는 로마사람으로 대하고, 희랍인들에게는 희랍인이된 입장에서 대하라.」고, 이 말씀의 뜻인즉 우리 신부들이 대하게되는 사람마다 그들의 신분과인격에맞게 대해주라는 뜻이 아니겠소? 예를들면 가난한 아스랑같은 사람에게는 신부의 정상복 차림이 오히려 그의반감을 자극시킬수 있으며, 반대로 대학교수나 그외에 지위있는 신자를 방문할때 작업복 차림이나 허트러진 모습으로가서 쌍말이나 지껄여보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모욕적인 행위가 되겠소? 그래서 때와 환경과 상대방의 입지적 조건등에서 오는 심리사항을 잘 파악해야만 하오. 그리고 우리의 차림과 모습과 말등으로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대 말이오."

"명심하겠읍니다. 오늘신부님의 좋은 강의를 들었읍니다."

내방에 돌아와 나는 아스랑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이에 본당신부의 충고가최상책이라 여겨져 그분의말씀을따라 어느날 다시 아스랑을 방문하기로 작정했다. 물론 위스키 한병을 지참할것도 계획세웠다.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것은 온본당신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였다.

(계 속)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

Old south orange Juice	24x12oz.	$24.09
J&M Schneider Cooked Ham		$ 1.59
Beef steakettes		$ 1.89
10 Oz. Wiener		$ 1.27
Tetley tea	24x36	$22.65
Nabob coffee	12x1 lb.	$36.89
Rown tree Reg.	36's	$ 9.89
Maple leaf flavor meat		.79
Salami		.99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Q.E.W. KIPLING EVANS TORLAKE RANGEMORE RD. ISLINGTON HORNER

봉 학 농 장
(전 화 :1-775—6256)
긴 겨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첫주(3월4일)부터 매주 다음장소에서 무우, 김치, 깻잎, 마늘쫑, 짠무우 판매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 오후6시(2441 Finch Ave.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E. 미들랜드×로렌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南北韓高位대표회담 3月에 열자

서울·平壤·板門店 어디서나

民族統一協 구성등 論議위해

孫在植 국토통일원장관은 오는 3월중 서울이나 平壤 또는 板門店에서 「南北韓高位代表회담」을 열어 統一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문제,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문제와 지난2월10일 北韓측이 내놓은 소위 「南北정치인연합회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25일 제의했다.

盧泰愚수석대표등 代表團9명 發表

孫統一院장관, 對北 제의

孫장관은 이날상오10시 서울三淸洞 南北대화사무국에서 對北聲明을 발표, 南北韓고위회담에 참석할 雙方대표단은 각기 각료급을수석대표로하는 9명으로 구성할것을 제의하고 盧泰愚정무제2장관을 수석대표로, 金相球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차장을 次席대표로하여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밝혔다.

그는 또 『南北韓 고위대표회담에서는 南北韓간의 교류와 협력, 사회개발과 긴장완화를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제반문제도 협의하자』고 촉구하고 『北韓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孫장관은 특히 이성명에서 『北韓측은 이른바 「南北정치인연합회의」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 할 우리측 인사 50명의 명단을 그들임의로 지명, 발표했을뿐 아니라 우리정부당국과 정당·사회단체가 대화의 상대로 될수 없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대화를 운운 하면서 상대측의 자격을 시비하고 대화상대측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지명, 발표하는 北韓측행위는 유례가 없는 몰상식한 所行』이라고말했다.

孫장관은 『더구나 한사람의 독재권력이 37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고 그권력의 세습적계승까지 자행하면서 1천8백만 北韓동포들에대한 무자비한 집단탄압마저 서슴지않는 北韓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정치질서를 시비하는것은 언어도단』이라며 北韓측은 이같은 그릇된 자세를 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孫장관이 이날 발표한 9명의 우리측대표단명단은 다음과같다.

▲수석대표=盧泰愚정무제2장관▲次席대표=金相球平統자문회의 사무차장▲대표=李榮一(국회의원·民正黨)金文錫(〃·民韓黨)姜祺弼(〃·국민당)白燦基(〃·民社黨)李洪九(서울大교수·平統자문위원)金泰瑞(國政자문회의전문위원)宋漢虎(南北대화사무국장)

우리측代表

◇盧泰愚수석대표 ◇金相球차석대표 ◇李榮一대표 ◇金文錫대표 ◇姜祺弼대표 ◇白燦基대표 ◇李洪九대표 ◇金泰瑞대표 ◇宋漢虎대표

"最高位회담위한 豫備會談도"

孫統一院회견

孫在植 통일원장관은 25일 南北韓고위 대표회담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키위한 「高位豫備회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孫장관은 이날 對北성명을 발표한 후 내외신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南北韓고위대표회담」은▲고위예비회담에서 다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개최문제와▲민족통일협의회의구성문제▲20가지시범실천사업의 실천문제▲北韓측이 제의한 「남북정치인연합회의」 개최문제도 議題로 삼고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에 합의하면 별도의 예비회담을 갖지않을 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孫장관은 또 『지난주 이른바, 北韓의 金道省대변인이 그들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對南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통해 과거 그들이 南北철도의 開通을 제의한바있다고 밝혔으나 이는정식제의가 아니기때문에 검토의대상이되지않고 있다』고말하고 『이문제를정식으로 제의해올경우 긍정적인검토를할 용의가있다』고밝혔다.

그린벨트 無許建物생기면 問責

全대통령 指示

汚染방지 班常會·學校서 교육

◇全斗煥대통령이 서울市政보고가 끝난뒤 城東구청에 들러 창문밖으로 주변환경을 살피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대한 관리와 無許可건축물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허가건물이 다시 생길경우 관계관들은 반드시 책임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시청에들러 朴英秀 시장과 관계국장들로부터 市政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지하철공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工程을 단축하고 공사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주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환경오염가운데 특히 水質오염의 방지는 가장 중요한만큼 中浪川등 水質오염을 일으킬수있는 문제지역에는 관계관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班常會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학교에서도 환경오염방지에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준비계획은 너무 서두르지말고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 단계별로 內實있게 추진해나가고 나무심기계획도 무리하게 추진해 묘목등 나무값이 올라가지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서울의 人口집중억제책을 강구하고 질서의식을 定着시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시청회의실에서 각계대표 1백23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야간통행금지해제를 비롯해 해외여행자유화등 일련의 개방조치를 취한만큼 모든 국민들도 개방된 사회속에서 1등국민, 1등시민으로서 한국을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새로운像을 보여주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문제는 전국민이 단결해서 협조하면 올해안에 定着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되면 아무리유능한 人士가 많더라도 그나라는 망하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중요한것은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공무원을 적극 도와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오찬을 마친뒤 서울 城東구청과 생활형편이 넉넉지못한 사람들이 사는 冠岳區 新林洞의 동사무소를 예고없이 방문하고 관내현황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하오1시50분 城東구청에 도착한 全대통령은 金濟亮구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업무에 대해체계적인실천계획을세워 추진해나가라』고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冠岳區 新林7洞 동사무소에들러 韓相來동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영세민구호문제등에 깊은관심을 보였다.

金浦공항~千戸大橋35km 8車線으로 高速道路化

서울市보고, 올림픽對備…幹線路등 17개建設

서울시는 88올림픽에대비, 金浦공항에서 千戸大橋에 이르는 기존江南路35km를 고속화하는등 오는86년까지 총2천9백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간선도로 3개등 17건의 도로건설계획안을 확정, 25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서울시보고에 따르면 江南路고속화는 漢江하상정비와 관련, 이구간의 한강하상36km에 폭 7백~8백m, 수위3~4m의 저수로를 건설, 물길을 곧고깊게 유도하면서 한강바다에서 채취되는 골재등을 이용, 江南路를 현4차선에서 8차선까지 江쪽으로 확장하고 중앙분리대설치, 노면정리작업을 병행, 기존도로를 고속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江南路 확장공사와병행될 한강하상정비 사업으로 저수로에는 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지고 강변에 조성될 1백4만여평의 고수부지는 조경등 시설을 갖추어 시민휴식공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의 한당국자는 江南路가 확장, 고속화되면 이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시속은 현재35~45km에서 80~1백30km까지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또 올림픽선수촌과 도심지및 각경기장을 연결하기위해 開浦洞에서 岩寺洞에 이르는 구간의 南部순환도로와 워커힐에서 九里邑을 경유, 泰陵을 연결하는 11·7km의 도로를 폭30m로 확장키로했다.

서울시는 그밖에도 梧柳洞 南部인터체인지에서 市界에 이르는 2·3km의 京仁국도를 노폭35m로 확장하고 高大뒷산에서 彌阿里고개까지 1·9km의 스카이웨이를 연장하고 제2한강교에서 楊花洞간 도로 1·6km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등 3개간선도로건설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그밖에도 도심지및 「교량진입로의 교통체증을해소하기위해 花郞路, 月溪路, 新路洞, 新林洞, 舍堂洞, 天洞, 良才洞등 7개지역에 고가차도 또는 지하차도를 건설, 도로를 입체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江東區 岩寺洞 한강에 7백2억원의 예산을들여 岩寺大橋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밖에도 도시설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등으로 도시의 미관과 예술성을 높이고, 도시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실립, 도심지76개 재개발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85년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굴곡버스노선을 직선화하고 신개발지역에 버스노선을 연장, 시내버스의 차체를 대형화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증대시킬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또 상하수도대책으로 오는86년까지 1일90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기위해 1천7백33억원의 예산을 들여 淸溪, 中浪, 炭川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6월까지 八堂수원지 상수도 생산량을 1일 1백만톤으로 늘리고 84년까지 九宜수원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시는 이어 반상회를활성화하기위해 현재의 班규모를축소 세분화, 15세대 기준으로 재편성할 방침이라고보고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班조직은 현재의 6만7천7백96개에서 9만7천여개로 늘어나게되고 班의편성도 현재의지번위주편성에서 골목중심으로 재편성된다.

人間教育강화

서울市教委보고

한편 이날 具本錫 서울시교육감은 교권확립의해인 올해에는▲신뢰받는 사도확립▲국민정신 교육의 내실화▲과학기술교육의 충실▲생활지도의 철저등을 교육지표로삼고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했다.

서울시교위는 교직 풍토를쇄신하기위해 전체교사의 70%에달하는 2만1천여명의 각급학교 교사에게 이념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의 사기앙양을위해 강남북 2개소에 생필품을 시중보다30%가량싸게 파는 후생관을마련, 교사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타민은 癌을 쫓는다

"大量섭취하면 담배害毒도 줄어…"

美 국립癌研究所 밝혀

【투손(美애리조나州)25日AP】 抗癌식사에 관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美국립암연구소가 밝히고 있다.

비타민의 抗癌효과에 관한 20여건의 연구가운데 18건이 비타민을 대량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고 이 연구소의 피터박사가 주장했다.

피터박사는 애리조나대학에서 열린 「비타민과 암」국제회의에서 이같이말하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든 간에 비타민을 대량섭취한다면 암에 걸릴 위험은 크게 감소된다는 사실도 노르웨이 학자의 연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식도암을 앓고있는 워싱턴 DC의 흑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연구조사에서는 영양상태가 나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립암연구소의 연구관인 그린월드씨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칼로리섭취를 줄이고 비타민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사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말斷熱材 癌유발

美議會서 禁止조치

【워싱턴24日UPI=聯合】 美議會소비자상품 안전위원회는 지난22일 포말단열재가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금지했다.

금년하반기부터 효력을 발생할 이 조치에는 포말단열설비를 갖춘 50만가구이상의 미국가옥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이들가옥이 전매될경우 한채에 2만달러정도의 손해를 보리라는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요소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포말단열설비업자 대표기관인 미국斷熱檢定院은 즉각 법원에 제소하겠다면서 의회에 대해 소비자상품 안전위원회의 조처를 철회시키도록 설득작전을 펼것이라고 밝혔다.

위컴司令官 歸任

업무협의차 귀국했던 존·A·위컴주한유엔軍사령관이 25일 새벽 0시40분전용기편으로 귀임했다.

워커美大使 歸任

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가 본국정부와의 政務협의를 마치고 25일 하오 귀임했다.

워커대사는 지난2일 일시귀국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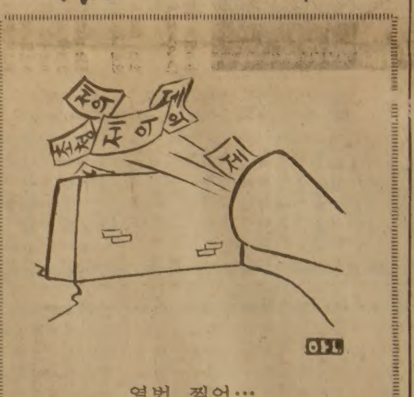
金正日 다음週에 副主席 임명될듯

【東京24日聯合=聯合】 북괴金日成은 그의아들 金正日에대한 권력승계를위해 다음주 새로운조치를 취할것이라고 24일 이곳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오는 4월25일 70회생일을맞는 金日成이 金正日을 부주석에 임명키위한 공작을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오는28일 북괴가 공산당지도부의 정책, 인사문제를 승인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할때 金日成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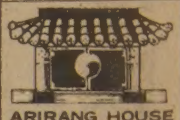
열번 찍어…

地平線

큰 사고에는 언제나 보상문제가 따른다. 궂은 일 뒤끝에 「사람값」을 따져야 하므로, 조금은 민망하지만 대형사고 보도에는 반드시 보상을 어떻게한다는 꼬리가 달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우 동양적인 심성은 사고를 낸측의 「성의」를 문제삼고 그 「성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대개는 訟事에 이르지 않고 문제가 수습된다.▼지난 8일 일본 도오꾜에서 일어난 뉴·저팬 호텔의 화재사고도 지금 그런 꼬리를 길게 끌고있다. 불이난지 20일 가깝도록 보상금에 합의를 못보고 있으니, 호텔측의 「성의」가 모자란것 아니냐는 생각을, 그저 동양적이라고 접어 둘수만은 없다.▼게다가 피해자가 우리나라사람 8명과 자유중국 사람 12명, 서양 사람 2명등 「多國籍」이기때문에 미묘한 문제도 없지않다.▼신문보도를 보면, 호텔측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한사람 2천만엔(약6천만원)의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일본사람과 서양사람의 보상금액은 비밀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틈에 들리는말인즉, 서양사람의 보상금은 한사람 3억엔으로 결정되리라고도 하니, 알다가 모를 일이다. 한사고에서 희생된 같은 외국인끼리인데, 그 보상이 15배나 차이진다면, 그것은 일본적인 「差別」일수 밖에 없다.▼하긴 「사람값」을 따지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근래 외신이 전했던 일본에서의 여론조사결과는 「사람값」을 생각하는 흥미있는 자료가 된다. 어떤 보험회사가 일본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람값」을 매기게 했더니, 평균7천5백여만엔(32만6천6백달러)의 自己評價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5년전보다 16·4%가 오른 「값」인데, 일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해보상이 대개 4~5천만엔이란것과 비교가된다.▼물론 피해보상의 「사람값」은 좀더 객관적이다. 호프만式계산법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않았다면, 그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수있었을까—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현재의 수입과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기간이다. 이 계산법에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6천만원이더라는 것이, 월수70여만원, 과장급봉급생활자이던 어떤 피해자의 경우다.▼2천만엔은 이 계산의 겨우 37%꼴이다. 피해자 일행중에는 상당수준의 경영자가 들어 있으니, 이들외의 경우는 격차가 더 클수 밖에 없다. 아직도 교섭이 진행중인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2천만엔을 「성의」라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성의」가 국적을 따라 「差別」지어진다면 바다건너 感情문제로 번질지도 모른다. 「성의」와 더불어 良識이 아쉬운 계제인 것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 1618

美、中美國에 軍經援확대

레이건、카리브海 安保강화宣言

蘇·쿠바威脅 강력對應

貿易·投資등촉진 經濟難도 완화

【워싱턴24日AP·AF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24일 미국은 中美와 카리브海 지역에서의 미국안보이익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소련과 쿠바의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위한 새로운 카리브海軍經援계획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美洲기구(OAS)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소련과 쿠바가 中美지역에서 폭력혁명을 배후지원, 조종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 지역 우방들에 대한 총4억1천만달러의 추가안보원조를 美의회에 요청할것이라고 밝혔다.

美의회는 이미 이 지역 19개 非공산국가들에 제공할 5억8천6백만달러의 원조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억1천만달러의 추가원조액중 軍援은 14.6%인 6천만달러 정도인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카리브海·中美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악화일로의 무역조건으로 『경제난관』에 봉착, 『자유와 평화의 적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지역에대한 5개항 무역·원조·투자계획의 개요를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날발표한 5개항 무역지원계획에 따르면 섬유류를 제외한 카리브海와 중미지역의 모든 제품들이 12년간 면세품으로 미국시장에 들어올수있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지역국가들의 私기업육성을 위해 3억5천만달러의 신규차관을 제공할것이라고 제의하고 또한 이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면에 있어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의 소리」社방문 한레이건 레이건대통령이 24일 창립40주년을24맞이한 워싱턴소재「美國의소리」방송국을방문, 옛날마이크를 선물로받고있다. 【워싱턴24日AP聯合】

核武器생산·비축 凍結용의

브레즈네프、化學무기사용금지도 촉구

【모스크바24日UPI=聯合】소련 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24일 모든 핵무기의 생산및 비축을 금지하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고 미국에대해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의 즉각적인 재개를 제의했다.

브레즈네프는 또 소련이 태평양및 인도양에서의 군사활동제한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화학무기의 사용금지를 촉구했다.

브레즈네프는 호주의 한국제협력및 군축기구가 레이건 대통령과 자신에 보낸 공개서한에 이같이 응답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이 모든 핵무기실험의 완전한종결뿐 아니라 더이상의 핵무기생산을 중지하고 핵무기비축을 줄여 궁극적으로 완전제거하는 협정에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전략무기제한및 감축을위한 美·蘇협상의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波 계엄規制 완화안해"

야루젤스키 國內긴장·地下활동 계속으로

【바르샤바24日路透AFP=聯合】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이며 계엄통치자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은 24일계엄선포이래 최초로열린 폴란드공산당中央委전체회의에서 미국을 신랄하게비난하고 『긴장과 과도한 지하활동』이 계속 존재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계엄규제조처를 완화할수 없다고 말했다.

야루젤스키장군은 이날 2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최근에와서 세계평화에대한 위협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전제하고 美행정부는 『협상의 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전환시킴으로써 이같은 평화위협에 가장 직접적인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야루젤스키는 서방이 폴란드를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폴란드는얄타및 포츠담협정에 근거를둔 『평화의 기축제』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가처한 『전쟁사태』(비상사태)는 사실상 『反戰사태』라고 말해야 할것이라면서 『언젠가 우리의 역사가들은 폴란드의 덕분으로 3차대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평가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희생시키면서 對 아랍 友好증진 不願

와인버거 美國防

【워싱턴24日UPI=聯合】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24일 미국은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온건 아랍국가들과의 우호관계증진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하원국방세출소위에서 2천5백80억달러규모의 83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미국의 對요르단무기판매 및 이스라엘관계에 미치게될 충격등에 관해 질문을 받고 그같이 답변했다.

쿠웨이트機 납치범 乘客석방 全員투항

【베이루트25日UPI=聯合】베이루트에 기착중이던 쿠웨이트항공사소속 보잉707 여객기를 지상납치했던 12명의 중무장 회교극단주의자들은 25일 승객및 승무원 1백5명을 모두 석방한후 저항없이 투항, 10시간의 인질극을 끝냈다.

메아리

사투리 放送

프랑스인과 텔리비전의 『30년蜜月』이 금가고있다. 오락프로가 질이 떨어지고 그나마 모자란다. 교양프로도 시원치 않다는 불평이 크다.

골든 아워인 저녁 8시30분 이후의 시청률이 80년에비해 작년엔 25%줄었다고 한다. 4명중 1명은 뉴스시간이 끝나면 텔리비전 화면을 외면해 버린다.

TV대신에 독서를하거나(37%) 수예·바느질로 시간을 보내며 레코드나 라디오를 더 즐긴다. 덕분에 극장관객이 늘었다고한 신문이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선 시청자와 텔리비전의 蜜月이 더 강해져가고있는것같다. 시청자의 태반이 가정생활에 좋은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한 여론조사기관의 최근 분석이다. 프로그램 내용이 1~2년전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좋아졌다는 의견이 보인다.

시청시간도 상당히 늘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하루 평균 3~4시간 가량을 텔리비전 앞에서 보낸다. 일부 어린이들에겐 거의 『萬事萬能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蜜月관계이면서 시청자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그 하나가 방송언어에 『사투리介入』이다. 보도·대담프로가 확대되면서 방송참여자의 얼굴이 다양해 졌다. 그와함께 출연자의 무분별한 사투리가 많아졌다. (한국일보25일자12면)

언어는 예민한 감각적 전달수단이라고 하겠다. 『프랑스말로 사랑을 속삭이고 독일어로 神을 이야기하며 영어로 연설하고 노어로 꾸짖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언어감각의 특징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말은 바르고 곱게만 쓴다면 아름다운말이 될수있다. 『아름다운 우리말』은 바로 표준어의 사용에서 시작된다. 사투리의 감각적 표현이 혹시 일부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지도모른다. 그러나 공공매체인 방송에선 결코 권장될수 없는 禁忌가 사투리다. 하물며 俗語가 튀어나오는 장면은 정말 참기 힘들다.

전문방송인의 엄격한 언어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 출연자도 표준어 사용이 전제되어야한다. 꼭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사투리를 쓸 경우면 그 뜻을 표준어를 쓰는 사람을 통해 『간접전달』을 해줄수 있을것이다. 방송매체는 『언어교사』의 사명도 짊어지고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偽幣식별 機械개발

★磁氣이용한 포터블型

자기(磁氣)를 이용해 손쉽게 위조지폐를가려내는 기계(사진)가 홍콩에서 개발됐다.

한손에 쥘수있는 조그마한 이식별기는 달러 인쇄잉크에 포함된 금속입자를 찾아냄으로써 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낸다.

지금까지 위조지폐식별은 육안이나 값이 많이나가는 자외선식별기에 의존 해야만 했다. 식별한 달러가 진짜일 경우기계에 부착된 조그마한 전구가 켜지게된다. 값은 대당25달러(한화 1만8천원 정도)。【뉴스위크誌】

貧富國간 汎세계 協商촉구

뉴델리南南會議 결의안채택

【뉴델리24日路透=聯合】세계44개 개발도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뉴델리에서 열린 이른바 『南南會議』는 24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정립하기위해 貧富國간의 범세계적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끝냈다.

한국을 비롯, 아시아의 17개국, 아프리카의 14개국 대표들은 이날채택한 결의안에서 북반구의 선진부국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해 지난80년 유엔이 명시한 협상원칙을 즉각 수락, 본격적인 남북간의 경제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고있는 어떠한 예비협상소집에도 반대한다고말했다.

이 결의안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브레튼우드 협정을 수정해달라는 개도국들의 요구를 선진국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줄것을 촉구했다.

빈부국관계와 개도국간의 문제등 양대의제를 놓고 광범위한 토의를 벌인 이번 뉴델리회의의 참가대표들은 또 개도국의 경제현황에대한 보고서에서 제3세계의 경제난국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개도국간의 식량에너지등의 분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문제를 검토하기위한 상설기관의 설치를 제의했다.

페灣6國 집단安保 조약

GCC 內相들 방위유대密着합의

【바레인24日路透=聯合】사우디아라비아등 페르시아灣 연안 6개산유국으로 구성된 페르시아협력협의회(GCC)는 24일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의 방위유대를 보다밀착시키기로 합의했다.

GCC내상들은 이날 리야드에서 지난 2일간의 제1차 GCC 내상회담을 끝낸후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6개국이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바레인,카타르,오만및 아랍에미리트聯合(UAE)과 각각 안보협정을 체결한 사우디는 조만간 쿠웨이트와도 안보협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우디가 쿠웨이트와 안보협력을 맺을경우 GCC집단안보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 EC탈퇴 國民投票통해 결정

【누크24日UPI AP=聯合】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가주민투표를 통해 歐共市(EEC)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관리들이 말했다.

엘살바도르事態 레이건골머리

軍援중지·協商촉구등 國內外서 압력

엘살바도르에서 좌익게릴라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니카라과는 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이 제안한 『엘살바도르평화안』에 쿠바와 함께 환영한다는의사를 밝혔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오닐하원의장 (민주당) 이3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엘살바도르정부와 게릴라세력간의 협상을 지지한다고말했다.

이들 4명의 시참의원은 미행정부가 엘살바도르에 대한 군원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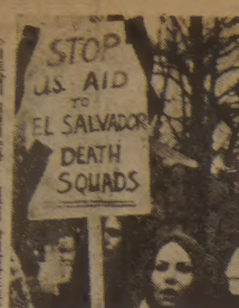
또한 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21일 마나과에서 『멕시코는 엘살바도르분쟁을 해결하기위한 평화협상을 중재할준비가 되어있으며 美—쿠바, 美—니카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니카라과 군사평의회의장 다니엘·오르테가도 지난22일 『멕시코의 제의는 엘살바도르 사태해결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며 적대세력간에 『최소한의대화』를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역시 멕시코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했고 겐셔 서독외상은 브뤼셀에서 열린 EEC(구주경제공동체)외상회의에서 中美에대한경제·사회적 원조를 요구했다.

프랑스는 이제의를 지지했다.

엘살바도르군 대변인은 지난2월 중부 비센테지역에서 反게릴라작전을 펴 게릴라거점 8곳,적30명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그후에도 게릴라들은 東部산·미구엘지역과 북동부 모라존지역에서 기승을부려 모라존 省都인 산프란시스코·고테라市가 23일 게릴라들에게 포위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재 수도산살바도르 북쪽 50km지점인 수치토토 지역에서도 전투는 치열하다. 최근 게릴라들의 공세강화와 함께나온 內外의 협상압력은 레이건행정부를 딜레머에 빠뜨리고 있다. 【外電=聯合】



◇베트남이 재현되는가? 미국의 對엘살바도르군원에 반대하여 시위를벌이는 워싱턴의美시민들. 【뉴스위크誌】

政府軍·게릴라간戰鬪 갈수록치열

인사이드

80年代후반 石油波動 다시온다

美조지타운大 국제戰略연구소 警告

80년대후반에 전세계적으로 또한차례의 석유공급 혼란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혼란은 미국을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이 전혀대비하고있지 않기때문에 더욱 가중될것이라고 美조지타운대학의 국제전략연구소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조지타운대학의 자문위원과 연구진에의해 지난2년에걸쳐 작성된 이보고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석유과잉공급사태가 계속되고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는 이상 아랍석유가 安全할지는 의문이며 아랍석유의확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및 유럽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또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들이 점차 자체 精油능력을 확대해감에따라 오는90년까지 유럽정유산업이 도산할지도 모르며 OPEC의 세계경제에서의 지렛대역할도 그만큼 확대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레이건 美대통령의 에너지정책에도 언급, 에너지省을 폐지하고 석유비축량을 축소하려는 미행정부의 계획이『재난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 또한차례의 석유파동을 앞두고 소련이 유럽에 공급할 예정으로있는 시베리아產 천연가스를 공산국에 대한 무기로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손社의 호워드·카우프먼사장은 24일 금년하반기에 美國과 세계각국의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것이며 이에따라 석유가격이 등귀할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우프먼사장은 세계경제가 83년에가면 급속도로 성장할것이며 국제석유가격도 폭등할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런던AP=聯合】

아랍産 확보위해 先進國 관계惡化

인사이드

宇宙파편에 지구궤도 交通難

각국衛星발사늘어 5천여개 떠돌아

상업및 군용인공위성의 발사로 지구궤도에는 5천개이상의 인조우주파편이 떠돌게되었다고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24일 밝혔다.

북미방공사령부는 직경 10cm정도의 우주파편 대부분이 지구로부터 1천km이내의 상공에 집중되어있다고 말했다.

오는3월 세번째 비행을 하게될 우주선 콜럼비아호는 약2백50km의 지구궤도를 선회하기때문에 우주파편과의 충돌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우주궤도에 떠있는 많은 우주파편은 차차 문제가되고있다.

美항공우주국(NASA)은 81년5월15일 소련우주기지와의 충돌을 면하기위해 기상위성발사를 잠시연기한 일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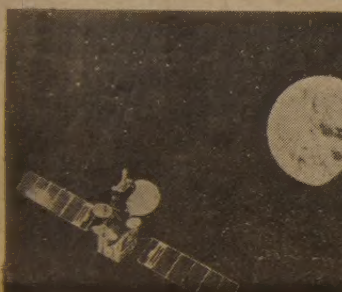
우주파편은 란두를 우주궤도로 쏘아올리는 분리단계, 사용이폐기된 위성, 우주발사에서 사용하는 폭발물등에서생긴다.

이파편들은 운석과 충돌해서 더작은 조각이 되기도한다.

美항공우주연구소(AIAA)도 지구궤도상의 물체가 금세기말까지 크게증가하여 충돌의 위험성은더커질것으로 예상한다.

동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직경1cm의 소형파편이 9백km이하의 지구궤도상을 1초에 10km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속도면 5cm두께의 알루미늄판을 뚫을수있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국방성우주전문가들은 미국、소련、유럽각국의 야심적인 우주계획때문에 파편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워싱턴UPI=聯合】



1천km이내 집중…衝突위험 加重

海外토픽

쿠웨이트서 史上 첫어린이誘拐사건

國民들 충격 "범인 死刑하라" 여론빗발

석유부국 쿠웨이트에 처음으로 어린이유괴사건이 발생, 전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유명한 사업가 살라·알·술탄의 4세된 아들이 지난11일 상오 쿠웨이트시의 집에서 유괴됐었다. 경찰은 20시간만인 12일 상오 이소년을 구출하고 범인 파드·압둘·살렘·나자르(26)를 체포했다.

정부는 이사건을 국가적범죄로 취급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20시간동안 수분 간격으로 수사진척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준 것은 지금까지 쿠웨이트에는 자국인이 관련된 살인、강간、유괴등 강력사건은 거의 없었기때문이다. 쿠웨이트의 범죄사건은 대부분 1백20만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에의해 저질러졌다.

쿠웨이트사람들을 더욱 놀라게한것은 범인 나자르가 사업가의 아들로 상류사회출신이라는 점이었다. 나자르는 학업에 실패한뒤 아버지의 회사에 실내장식가로 근무하면서 마약을 복용했다.

유괴사건을 저지르기 1주일전 그는 아버지와의 불화로집을 뛰쳐나왔다. 그후 돈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족에게 복수하기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많은 쿠웨이트인들은 본때를 보이기위해 나자르를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유괴소년이 아무런해를 입지않았기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것으로 보고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죽음의 祝祭도한몫

★브라질謝肉祭2백여명숨져

지난 20일부터 23일밤까지 만4일간 수십만명의 브라질 국민들이 흥겨운 삼바춤속에 먹고 마시며 흥청거렸던 리오사육제에서 2백4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잃었다고 라디오방송국들의 비공식 집계가 24일말했다.

브라질 라디오방송국들은 비공식 집계결과 지난해의 1백75명보다 훨씬많은 2백40여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인 2명을 포함 총1만6천8백명이 폭력 노상결투 자동차 충돌사고 과도한 음주등으로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보도했다. 【리오데자네이로=UPI】

波영화「鐵人」후보

★美아카데미賞에

매년 아카데미상을 시상하고 있는 미국영화 아카데미는 24일 금년도 최우수외국영화상후보에 오른 폴란드영화「鐵人」을 후보작품에서 빼달라는 폴란드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계엄선포이전에 제작된 이영화는 폴란드노조운동의 발생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개념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도 출연하고 있다. 【할리우드=UPI】

統一열망 진전기대

미테랑대통령 밝혀

【파리25日=金聖佑특파원】尹錫憲신임 駐佛대사는 23일 하오 엘리제宮에서 미테랑대통령에게 신임장을제정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尹대사의신임장 제정사에대한 답사를통해 『프랑스는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조종에 완강히 저항해온 한국민들의 운명을 친근감과 이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이 실현의 실마리를 찾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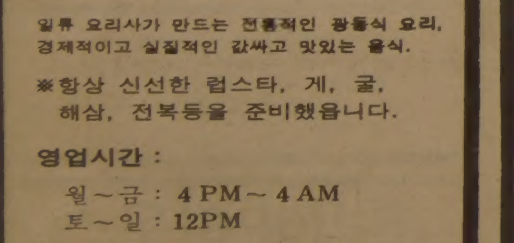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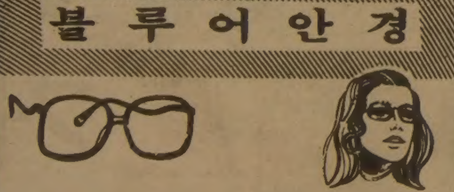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 (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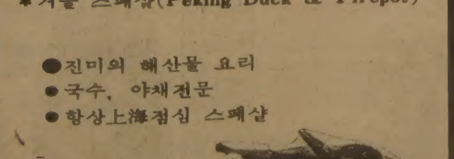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폐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폐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8 (R) M3B 1Z3

그때 그事件 그內幕

臥牛시민아파트 倒壞

展示행정·非理의 代名詞

撤去작업도 겨우한 不實

1970년대를 지나오면서「시민아파트」라는 명칭은 합법적인 건축물 중에서 사회통념상 최하위의 주거양식을 지칭하게 되었다。70년초이후 서울江南 벌판을 뒤덮고 들어선 아파트群들은 대부분 시공회사의 이름뒤에 맨션·빌라등 英國的인 호칭으로 아파트의 품격을 강조했고, 75년이후 서울시가 건립한「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들도 모두「시민아파트」가 아니라「시영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아파트에 있어서「시민」과「시영」을 구별할 수있는 평형별기준이나 분양방식의 차이는 없다。그러나서울시주택행정가들의 개념규정에 따르면「시민아파트」란 입주시기의 공정을 표준으로해서 건물의 골격만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입주자 책임하에 온돌, 도배등 내장공사를 하게되고 녹지대, 진입로등 공동구역은 입주자들의 공동부담으로 맡게되는 이른바「골조아파트」를 지칭하는 말이다。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서울시외곽이나 고지대에는 4백6동의「골조아파트」들이 들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골조아파트」들의 대거등장은 광복후 25년간 주거에 관한 대도시의 고통의 산물이었고, 1970년4월8일 서울麻浦區 倉前洞 山2 臥牛시민아파트 제15동 5층건물의 붕괴사건은 한 시대의 주거난과 거기에 얽힌 온갖 非理들을 폭발적으로 노출시킨 참극이었다。

6·25동란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허가 불량주택과의 싸움이었고 이싸움은「주택재개발」이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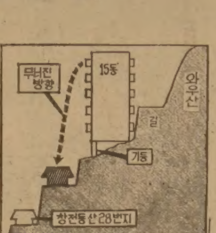
광복직후 서울시내에는 13만여동의 판자집이 들어서 외곽지대는 물론 도심지일대에까지 거대한 슬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60년대 초까지 서울시는 이판자집중 재해위험 지역만을 선정, 해당지역 주민을 彌阿洞, 九老洞등에 8~10평의 시유지를 내주어 이주시키는 소극적인 정책만을 펴왔다。

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시는 시외곽 上溪, 巨餘, 奉天, 新林 지구등에 집단 거주지를 마련, 도시내의 판자집 4만2천여 세대를 이주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이주와 철거, 그리고 이 판자촌에 때때로 발생하는 대형화재 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내의 판자촌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았다。市는 행정기관에 어울리지 않게「무허가 철거반」이라는 物理力을 갖추기에 이르렀으나 독버섯같은 생명력으로 퍼져 나가는 판자집을 당해낼도리가 없었던것이다。

60년대후반에 이르러 무허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성을 띠게되었다。

城南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만들어 철거민들에게「집단이주」시키는 행정력의 철퇴를 내리는 한편 저돌적인 기세로 도심근접 구릉지에 시민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였다。그러나 무리한 행정력에 의한 집단이주는 城南이주단지에서의 주민난동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臥牛아파트의 붕괴사고로 이전동적인 건설사업의 허구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1969년초 金玄玉당시시장이「시민아파트 2천여동 건립」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을 때「그 계획은 서울시의 판자집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착상으로 각계각층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민아파트가 차례로 들어서게되자 과연 판자집은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고, 산동성이에 들어선 노란색 페인트의 아파트群들은 장래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해 줄 것으로 촉망을 받기도했다。

당시의 주택행정관리들은 페인트 칠을 특히 좋아했다。전 공정의 80%정도만 끝나면 돌격공사에 대한 시아게 (마무리손질)로서 우선 아파트외벽에 페인트부터 바르기 시작했다。

당시 金玄玉서울시장은 시청 정문앞에「시민위한 아파트2천동, 4백50만 우리의 용기다 훈장이다」또는「의욕수를 과시하자」는 내용의 난해한 구호를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시내 도처에서 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돌격공사의 팡파르를 울려대고 있었고 그의 이 저돌적 추진력은 행정의 말단에서「준공전 페인트칠」이라는 눈가림, 전시위주의 뒷마무리로 나타났던것이다。

그러나 눈가림 페인트칠뿐이 아니라「골조아파트」의 골조 조차도 그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던 것인가는 臥牛시민아파트제15동이 붕괴한 후에야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고당시 이 아파트를 진단했던 건축전문가들은『臥牛아파트는 허물어져내린것이 아니라 서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

부지자체가 도저히 5층 건물을 지을수 없는 60~70도 급경사의 산비탈인데다가 5층 건물 전체를 버티고 있는 건물밑부분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없이 시공되었으며, 철근및 콘크리트 배합의 과정에서 示方書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재를 빼돌린 부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臥牛아파트 제15동의 붕괴는 사고가 나기 1개월전 쯤부터 충분히 예고되고 감지되었다。인근 14동이 부축기둥이 금이 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고, 3월 초에는 15동 부축기둥의 균열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4월초 시장단으로부터 15동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라는 지시가 관할 麻浦구청으로 하달되었으나、麻浦구청은 이 지시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치 않았다。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金玄玉시장의 멱살을 붙들며 울부짖었고 金시장은『나는 단죄되어야 마땅하거니와 市의 아파트건립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며 함께 울부짖었다。사고희생자 32위의 합동위령제에서、재임4년간 돌격공사의「의욕수」를 과시해온 金玄玉시장은 통곡의 열기만큼이나 비통한 조사를 읽어 장내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집없는 설움에 겨워 집을 갖고자 몇씩이나 몸부림쳐왔던 영세서민들이여…』

그러나 영세서민이라고해서 누구나 이죽음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臥牛아파트 제15동은 원래 철거된 倉前洞山2번지 판자집 주민을 위해 건립된 것이었으나 사고후 입주자 14세대중 3、4세대만이 제대로된 철거민이었고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철거민들의 입주권리를 프리미엄 20만원정도를 주고사온 사람들임이 밝혀졌다。

70년대를 풍미했던 아파트 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되었던 프리미엄 제도는 이 무너져버린 臥牛아파트의 잔해속에서 이미 싹텄있었던 것이다。

건물은 역학적 필연성에따라 붕괴하게 무너졌지만 이 사고가 몰고온 사회적 충격의 여파는 엄청나게 컸다。

사고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麻浦구청장 金玉敍씨등 공무원、업자 6명이 구속되었고 그후 수사기관의 시민아파트 전체에대한 안전도진단에 따르면 전체 4백6개동중 70%이상이 각종 재해의 위험을 안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를 위반하고 멋대로 층수를 올린 아파트 업자들이 차례로 구속되었고「대책」을 호소하는 입주자들의 농성은 여기저기서 계속되었다。

臥牛시민아파트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기존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도진단을 해마다실시, 위험한 건물은 철거하고 부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벌이고있다。그러나 金玄玉전시장의 예언과도같이 서울시는 서민주택건립의 템포를 조금도 늦출수는 없었다。서울시는 그후에도「시영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2천~3천세대분씩의 아파트를 지어나갔다。

서울江南지역、汝矣島지역등에는 민간업자들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아파트에 얽힌 회비극은 70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도를 이루었다。

70년대의 벽두에 허물어져내린臥牛아파트는 그야말로 雨露를 피하기위한 서민들의 아파트였다。그러나 이들의참사이후에 대거등장한 아파트群들은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신했다。철거민을 위해 지은 시영아파트 조차도 입주권은 전매에 전매를 거듭했다。

臥牛아파트 붕괴사고이후 인근 13、15、16棟을 헐어내는 철거공사에는 가장 노련한 비계공 조차도 감히 덤벼들지 못했다。그들은 철거작업중 버석버석한 콘크리트가 언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 몰라서 인근 바위에 건물 전체를 와이어 로프로 묶어놓고 원숭이처럼 건물을 넘나들며 조금씩 콘크리트 조각을 뜯어냈다。

臥牛의 희생자들은 雨露를 피하기위해 이 아슬아슬한 콘크리트속에「내집」을 마련했고、무너진 내집의 잔해에 깔려숨졌다。그러나 이들이 숨진후에도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에는 투기와 주택난이 아직도 범존하고있다。

【社會部】

◇자취도없이 흘러버린 慘事의 현장

臥牛시민아파트 15棟의 붕괴현장。14세대의 주민이 들어있던 5층아파트 한棟이 한조각 콘크리트 파편으로 부서지면서 계곡으로 흘러내렸다。【70년 4월8일의현장】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6>

禍자초한 舊主流의「警告시위」

4·8抗命파동

3選改憲 沮止力과시 목적 脫黨屆까지 쓰고 團合…叛票

69년4월12일 토요일하오。日本東京의 호텔에 투숙해있던 共和黨당기위원장 崔斗高의원은 駐日대사관의 金某공사로부터 긴급전화를 받았다。『빨리 귀국하란』는 黨의전갈이었다。그는 신경통치료차 東京에서 치료중이었다。

崔의원은 다음날인 일요일상오 서둘러 귀국, 그길로 忠正路의 尹致暎당의장서리를 찾았다。

『대통령각하가 그렇게 大怒하는걸 처음 봤소。抗命주모자가 20명가까이 된다는 것이오。대통령은 20명을 자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25명을 자르겠다고 해야될 지경이오』

그러니까 며칠전 일이다。

4월8일, 이날 제69회 임시국회본회의는 新民黨이 제안한 權五柄문교장관 해임권고 결의안을 재석 1백52명중 可89, 否57,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이날 출석 의원은 共和 1백명, 新民黨 41명, 政友會 11명이었다。

앞서 건의안을 부결시키라고 한 朴正熙총재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共和黨의원 45~50여명이 야당에 동조한 것이다。

뜻밖에 共和黨이 自中之亂이 일어난 것이다。당시 議席數가 재적 3분의1도 못되는 야당은 對국민선전 또는 對정부 으름장用으로 閣僚 불신임건의안을 제기했고 여당은 이때마다 의례적으로 否決시켜왔던 터에 可決은 곧 야당에 合勢와 함께 自體叛亂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른바「4·8抗命사건」으로 공화당은 엄청난 정치적 태풍에 휘말렸다。

먼저 청와대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다。朴대통령은 抗命사건 이틀뒤인 4월10일하오 총재相談役 당무위원 국회상임위원장 市·道支部위원장등 공화당간부 40여명을 초치한 확대간부회의에서 憤怒를 터뜨렸다。

『…이번 權문교해임안표결에서 보인 공화당의 반란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反黨행위로서 黨의위신을 추락시켰고 黨지도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문제는 黨運을건 문제라고 생각한다。黨의 中間보스制는 절대인정못한다。몇십명이 되더라도 反黨分子들을 색출, 처단하라。黨紀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처리못할경우 총재職을 그만두더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朴대통령은 20여분간 怒氣어린 叱責을 한뒤 반란票의 주동자로 알려진 楊淳稙국회재경위원장 芮春浩상공위원장에게『뭣때문에 의원들을 선동했는가。할얘기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두의원은『조직적인것이 아니라 각자 소신에따라 행동한것입니다。날이 갈수록 創黨이념이 퇴색하고 黨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경종을 울리기위해서 한것이지 결코 權장관 개인에대한 감정은 아닙니다』(楊위원장)『나는 可票를 던졌지만 상공위원들에게는 否票를 던지라고 했읍니다』(芮위원장) 라고 대답했다。

朴 대통령의 불호령에따라 공화당은 즉각 반란표주동및 가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8抗命波動의 중심인물인 楊淳稙 芮春浩 鄭泰成 朴鍾泰의원(앉은사람들)이 공화당에서 除名된뒤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처음 黨紀委의 조사대상자엔 23명이 오르내리다가 10명선으로 압축됐다。그때의 10명은 楊淳稙, 朴鍾泰, 芮春浩, 金達洙, 尹天柱, 鄭泰成, 申允昌, 金宇榮, 吳學鎭, 吳元善의원이었다。

이들 舊主流의원들은 그해 연초부터 黨지도부가 추진하는 3선改憲저지를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보이다 야당이 말썽많던 權五柄문교장관해임건의안을 내게되자 이를이용, 집단적인可票를 던져 改憲저지의 示威를 한것이다。

공화당의 18년역사엔 권력을 둘러싼내부의 갈등, 榮辱이 엇갈린 파쟁, 挑戰과 應戰속의 몸부림이 짙게 얼룩져있다。그가운데 60년대말과 70년대초 공화당을 발칵 뒤집어놓고 政局을 迷路에 빠뜨린「4·8파동」과「10·2파동」을 가장 대표적인 黨內障痛으로 꼽는다。前者는 3選改憲추진과정에서, 後者는 4人體制와反4人체제간의 알력에서빚어진 파동으로, 갈등의 主體는 달랐으나 모두 장기집권의 길목에서생긴 사건이라는데 특색이 있다。

共和黨內紛의 시초는 창당초기창당의 産母격인 金鍾泌세력과 그톡주를 막으려는 최고회의안의 反金세력과의 대립이었다。사전조직과 4大의혹사건으로 金鍾泌씨가「自意半·他意半」의外遊를떠나 몰리기시작한 主流는 金씨의귀국으로 잠시회복하는듯 싶다가 64년엔 6·3데모파동끝에 金鍾泌당의장이 2차외유에나섰고 65년12월엔 국회요직개편을둘러싼 함명파동으로 主流의 사령탑격인 金龍泰의원이 6개월간 停權처분을받는등 수난을당했다。

主流가 이처럼 受難을 거듭하는 동안 비주류는 기반을 구축, 6대국회후반엔 주도세력이 됐다。主流는 이름만 주류였지 그때부터 非主류의 운명이었다。

7대국회 들어선 3선개헌의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자、71년 대통령선거에서 JP를 후계자로 밀려는 主流는 版勢를 逆轉시키려고 애를썼다。그 과정에서 복지회사건이터졌고 그결과 金鍾泌당의장이 물러나자 당권에서 소외된 主流는『舊主流』로 불렸다。이어 터진것이「4·8파동」이다。「4·8파동」은 舊主流의 야당에대한 동조라기보다는 4人體制중심의 3선개헌을 저지하고 自救策을 찾으려는 舊主流가 黨內紛의 불씨를 밖으로 폭발시킨 사건이었다。

4·8파동의 主役인 楊淳稙씨의 회고。「4·8抗命은 한마디로 3選개헌저지, 즉 장기집권을 막자는결의를 행동으로 보인것입니다。68년말부터 당시 尹致暎공화당의장서리와 吉在號사무총장이 改憲얘기를술술 꺼내면서 추진하려는 속셈을 보이는데 자극, 뜻을같이하는 의원들끼리 以心傳心으로 저지키로 했지요。2월들어 어느날 우리집(梨泰院)에서 18명의의원이 모여 이를 결의했고 다리를놓아 30여의원으로부터 저지背水陣을 치는뜻에서 脫黨屆를받아 내가 보관했지요。당시 헌법과 국회법은 탈당은 곧 의원직자동辭退이기때문에 비장한 결의를 보인것이지요。그때 당지도부와 관계기관의 감시 탄압 협박은대단했읍니다。우리의행동을 단지 舊主流의 再建이니 또는 黨內파벌싸움의 일환으로 분석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舊主流의원이었던 金宇榮씨(변호사)의 말。

『야당이 4월초 權문교해임을 건의키로 결정한뒤 舊主流의원들이두차례인가 만나 可표를 던지기로 했지요。그러나 표결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權문교해임에 대한 이유가 선명하게 나오질 않았어요。나자신은 權문교와 私感도 없었고 또 그를 불신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문제는 개헌저지에 있었지요』

또다른 주동자였던 K씨의 말。

『3선개헌공작에 쐐기를 박기위해 조직적인 시위를 하기로 묵계했으나 議總에선 말을 삼갔지요。內密의 약속이니까요』

이런 內密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동세력 부에서 不吉한 생각이 들었다。

舊主流 별동대장격이었던 朴鍾泰의원도 그중의 하나。그는 4·8파동전『權문교해임을 악착같이 밀어붙여야 할것인가。잘못되면 反개헌세력이 풍지박산되는게 아닌가』하며 무척 고민을했다。

결과는 그가 우려했던대로였다。

朴의원은「4·8 파동」한달전에 이미 朴 대통령과「黨紀委회부」를 놓고 한차례 얘기를한적이있다。

3월13일하오3시께 그는 청와대에 호출됐다。

『朴의원은 3월10일議總에서 청와대가 부정부패의온상이라하고 각료를 심히 공격했다는데 그말에 책임지시오。朴의원은 黨紀委에 회부해서 제명이야』

뜻밖의 말이었다。그로선 그날그런말을한 기억이 없다。『그런 보고라면 누가 날조한 것입니다。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저를 黨紀委에 회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朴 대통령은『3월10일의 議總에선 안했다하고 그럼 2월3일 議總에서 무슨말을했는가 얘기해보시오』라며 추궁했다。

2월3일의 議總, 그날 그는 적극적인 3選개헌반대발언을 했었다。

『나는 中學시절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를 증오했으나 나이먹고 생각하니 브루투스야말로 시저의 명과 로마의 민족주의를 바로 흥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느리가 자기보다 잘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없으나 맡겨두면 잘하는 법이다…』라고。

『金鍾泌이가 하면 잘되나…』라고 朴 대통령이 소리를친것은 그얘길 듣고난후였다。그 2월3일議總이 있은 2주일뒤인 2월17일밤 그는 青丘洞에서 舊主流인물들과 만나고 승용차로 귀가길에 南山언덕길에서 정체불명의 트럭이 덮쳐 17바늘을 꿰매는 중상을당했다。

崔斗高당기위원장은 東京에서 돌아온 13일 모사내용을 검토하고는 하제명대상자를 6、7명으로 잡고 하루종일 그들과 접촉했다。그런뒤 당기위원들과 재검토、5명으로 축소했다。

朴大統領불벼락에 5議員제명당하고 위축일로

다음날인 14일、崔위원장은 尹致暎당의장서리、새로 임명된 金澤壽원내총무와함께 청와대에 갔다。그의 명부에 오른「최후의 5人」은 楊淳稙、芮春浩、朴鍾泰、金達洙、尹天柱의원이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결과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崔위원장의 말에『그럼 당신은 몇명쯤으로 했으면 좋겠소』라고 朴 대통령은 물었다。

『5명線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명단을 제시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한 당직자가 5명에 鄭泰成의원을 넣을것을 강력히 주장했다。朴 대통령은 한동안을 말없었으나 결국 마지막순간 尹天柱의원이 빠지고 鄭泰成의원이 除名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15일상오9시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人은 어제까지 그들 舊主流의 보스格이었던 金澤壽총무로부터 그들을 잘라내는 除名의 논고를 들어야했다。

崔斗高 당기위원장은 복지회사건때도 호출당해 올라와 동료들 목자르는「惡役(?)」을 했던 터라괴로움이 더했다。

1년전인 68년5월22일 釜山에서 지역구를 돌고있던 崔위원장에게 共和黨釜山사무국과 釜山市警에서 긴급연락이 왔다。빨리 上京하라는 당의 지시였다。

그는 밤열차를 타고 다음날 새벽 5시 서울역에 내렸다。李斗宇당기국장등이 마중나와 있다가 그를 小公洞 신신호텔로 모셔갔다。거기서 그는「복지연구회사건」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主役인 金龍泰의원등 3명을 잘라야한다는 것이었다。사전 해명이나 진술도 한마디 받아놓지않고 잘라야 한다니、그에겐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날낮 11시께 崔위원장은 某기관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복지연구회 사건을 브리핑해야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는 거였다。그는『내가 가겠다』고 말하고 某處로 가서 브리핑을 들었다。

역시 그 기관의 조사에서도 문제의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게 전혀 없었다。일방적인 조사라는생각이 들었다。

그런뒤 崔위원장은 小公洞당사에서 吉在號사무총장을 만나『3人의 최후진술도 없는데 내가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하겠는가。난 못하겠다』고 말했다。그말에 吉총장은『金鍾泌당의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가 金당의장을 만나『난 의총에서 사회는 할 수 있지만 제안설명은 못하겠다』고 말하자 金당의장은『그럼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결국 金鍾泌당의장은 그의 오른팔격인 金龍泰의원의 제명선고를 해야했다。

공화당은 5월24일 黨紀委에 이어 다음날 의총에서 金龍泰의원과 6대文公위원장인 崔永斗씨, 중앙위원 宋相南씨등 3명을「해당행위자」로 제명처분했다。

문제의「한국국민福祉연구회」는 사건이 터지기 3개월전부터 중앙위원 宋씨의 着想으로 추진돼 金龍泰씨가 회장, 崔永斗씨가 부회장이 되고 주류와 중진급의원들이 지도위원으로 내정되면서 은밀한 조직체계를 갖췄다。복지연구회는 당시 포섭대상자 9백여명에게 조직강령, 정세판단서등을 전달하고 입회를 종용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교섭대상자들로부터 중앙당에 가입여부의 문의가 들어오면서 잡음이 일어났다。

급기야는 黨內정당을 획책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세판단서에 3선개헌저지 운운대목이 들어있다는게 큰 화근이 됐다。

공화당은 당시 3人의 除名사유에서『이들이 당조직상 큰 혼란을 가져오게했고 당발전에 극히 위태로운 행위를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것이 공식사유이긴 하나 사실은「복지회가黨내비밀결사로서 金鍾泌의장을 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밀기위해 分派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파동끝에 金鍾泌당의장도 그 며칠뒤『모든公職에서 물러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하고 政界에서 은퇴했다。

가뜩이나 상처투성이인 主流는복지회파동으로 투구를 벗고다시「4·8파동」끝에갑옷까지벗게되었다。

4·8파동의 희생자였던 P씨의 회고。『3선개헌의 의도는 이미 67년선거전부터였다。3선개헌반대파였다 해서 정치이념이 고상하다거나 무슨 志士같은 것은 아니었고 개헌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 朴대통령의 계속 집권엔、또 한쪽은 金鍾泌씨를 후계자로 밀려고했던데서 빚어진 정치싸움이었다。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力不足이었다…』

파동은 오래지않아 또 파동을 낳아 71년엔 舊主流를 잡은 4人體制가 된서리를 맞고 붕괴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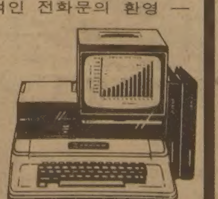
【特別取材班】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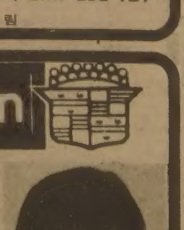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반광고 : 최성조
● 매매구인광고 : 박정욱
533-236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아이구, 이런!" "무슨일예요?"
"읽은것을 믿는독자는 바보라는 기사가 실렸다구"
"그래서요?"
"난 믿었으니까!"

美 未婚母학교 성업
재학생 거의 12~18세 年少者들

임신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만을모아 임산부및 유아건강교육, 직업기술교육등을 실시하는 미혼모(未婚母)학교가 현재 미국에서 성업중이다.

일반중고교와 같은 시설에 교육과정까지 모두 갖추고있는 이未婚母학교는 로스앤젤레스에만 9개교가 있다. 2년전까지만해도 미국사회에서 신체적불구아취급을 받던 미혼모들은 주위의 눈총에못이겨 이학교에 옮기기시작했는데 이제는 정규학교에못지않은 학교로변했고 사회의비상한 관심을 모으게됐다.

재학생들은 대개가 12세에서부터 18세사이로 이학교에서는「레이디」로 불린다. 그들은 일반과정외에 분만연습 요리만들기등을 배운다.

이학교에서는 또 생계비가부족한 미혼모학생들을위해 교내에 현금계산기, 교환대도설치, 희망에따라 일할수있도록했고 잦은 결석을 방지하기위해 버스요금까지 학교측이 지불하고있다.

문제는 날이갈수록 미혼모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그 수 또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상과함께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곳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거의 없어졌다.

메이·레이놀즈교수는『이런 추세가 어린이 학대문제와 직결되어있다』면서 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LA支社】

◇아들열네명에 첫딸 호주의 메이든·걸리에 살고있는 조지氏부부는 계속 아들만을 낳은끝에 드디어 딸을낳아 모두 15명의 자녀를 두게됐다. 이들부부는 딸을얻기위해『한번만더…』하다 이같은 출산기록을 세웠다며 즐거운 기념촬영. 【라이프誌】

全雄煥 첫 金메달
世界태권도 플라이級서 헤비級은 西獨 징

【과야킬(에콰도르)=関炳宇특파원】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25일 이곳 콜로세오 체육관에서 5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 한국의 全雄煥(동대문상고)은 플라이급에서 첫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헤비급의 馬相賢(해군)은 준준결승서 탈락했다.

全雄煥은 이날 준결승에서 멕시코의 페르난도·셀라와 접전끝에 판정승을거두고 결승에 진출, 자유중국의 첸치왕과 대결한끝에 최종3회전에서 돌려차기로 다운을빼앗아 판정승을거두고 금메달을따냈다.

◇첫날전적
▲플라이급 ①전웅환(한국) ②첸치왕(자유중국) ③페르난도·셀라(멕시코)·에루구럴·터가이(서독)
▲헤비급 ①더크·징(서독) ②킴·로이스(미국) ③프란시스코·포네카(스페인)·스칼마마·다미오(이탈리아)

한국4勝1敗 준우승
쿠웨이트國際농구 브라질1·유고3位

【마나마(바레인)25日=聯】 韓國은 24일밤 폐막된 쿠웨이트독립21주년기념 국제초청농구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홈팀 쿠웨이트를 96-83(전반52-45)으로 물리치고 4승1패의 전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朴守敎는 25점을 획득, 韓國팀의 최고득점자가 됐으며 李忠熙 李琅鉉 두선수는 각각 20점과 17점을 따냈다.

◇최종일 전적
韓國 96(44 52 / 38 45)83 쿠웨이트 (4승1패)(1승4패)
브라질 96(42 54 / 37 52)89 유고 (5승)(3승2패)

國內첫 陸上校운영
大邱市 五輪등대비

【大邱=聯】 大邱市교위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 육상경기종목 우수선수양성을위해 올해 우리나라서는 처음으로 육상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교위에 따르면 국민학교 4학년이상가운데 육상경기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오는3월부터 단거리 중장거리 투척 도약등 종목별로 집중훈련을 시킨다는것.

92년冬季五輪 유치
西獨 다우메씨밝혀

【도르트문트24日=聯】 西獨올림픽위원회의 빌리·다우메위원장은 오는 92년동계올림픽대회를 西獨에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24일말했다.

전국남녀종합빙상선수권대회겸 제17회 전국남녀종목별선수권대회가 25일 泰陵국제스케이트장에서열려 첫날2개의대회신기록이작성됐다.

◇첫날기록(종목별1위) ▲남자5백m=金東鉉(단국대)39초69(대회신·종전39초70) ▲동여자=林賢淑(동국대)43초21(대회신·종전44초26) ▲남자5천m=羅潤洙(단국대)7분39초12 ▲여자1천5백m=林賢淑(동국대)2분26초19

野球委 홍보단構成
시즌 오픈앞두고 讚歌등 제정
홍보활동 本格化

3월27일의 시즌오픈을 앞두고 프로야구의 홍보활동이 점차 본격화 되고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6개구단과의 보다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7인 홍보단을 구성하는 한편 긴안목의 홍보책으로『야구어린이』라는 프로야구찬가를 제정, 보급키로했다.

가요계의 중견작곡가 吉屋潤씨의 곡에 야구위원회 홍보실장 金昌雄씨의 3절가사로 만들어진 이 야구찬가는 곧 레코드로취입되며 개막식에서도 직접연주될계획이다.

萬海탄신 百3周年
來1日 전국백일장

萬海韓龍雲탄신 1백3주년기념 전국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3월1일(상오10시반~하오5시반)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印, 낙태死亡높아
매년 66만명이나

인도에서는 매년 4백만명이 낙태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중 66만명이상이 사망하고 있는것으로 최근 한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하라하바드·힌두대학의 학교수인 S·M·다스구프타씨는 이같은 낙태로 인한 높은 사망률은 수술과오와 후유증으로 야기되고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무면허 돌팔이 의사를 찾아 낙태수술을하는 경향이 만연해 사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71년 인구증가를 억제하기위해 임신중절자유화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법이 불법낙태수술문제에 관해 너무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다스구프타교수는 세계최고의 낙태사망률이란 수치를 씻기위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인구억제책을 강구할것을 역설했다.

百30년후 世界人口
1백억 넘을듯

【뉴델리=聯】 세계인구증가는 앞으로 1백30년후에는 막을 내리게될 것이며 그때 지구상의 인구는 현재의 2.5배인 1백억이상이될 것이라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내놓은「81년세계인구상태보고서」는 지적하고있다.

이보고서는 앞으로 1백30년후의 세계고정인구는 현재의 인구억제정책의 효율성에따라 최고 1백42억~최저80억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UNFPA의 라파엘·살라스사무국장은『현재와같은 인구억제계획이 지속된다면 오는 2천1백10년에는 1백5억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NFPA의 보고서는 제로인구성장은 50년후 유럽대륙에서 먼저 이뤄질 것이며 그 다음은 북미대륙과 소련, 21세기말에가서 남아시아대륙, 2천90년에 동아시아국가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억제가 이뤄지지않고 있는 아프리카는 현인구의 4배로증가한후 인구증가가 중지될것이라고 그는덧붙였다.

3·1文化賞시상식
來1일 가든호텔서

금년도 3·1문화상시상식이 3월1일 하오3시30분 서울 麻浦區 桃花洞169 서울가든 호텔2층 무궁화홀에서열린다.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李庭林)이 시상하는 3·1문화상 금년도 수상자는 ▲학술부문에 宋熙昇씨(45·서울大 자연대교수) ▲예술부문에 金達聲씨(61·檀國大음악과교수) ▲기술부문에 閔季植씨(40·大宇조선 기술담당이사) ▲근로부문에 洪允和씨(44·한국전력 연수원교수부) 등이다.

藝總 常任부회장
趙敬姬씨

한국藝總(회장 申榮均)은 지난22일 정기총회를 열고 趙敬姬文人협회이사장 직무대리(사진)를 예총상임부회장으로 선출했다.

記者의눈
낙태反對…가톨릭·이슬람

지난주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나이지리아, 베닌, 가봉, 적도기니등 아프리카각국을 순방했다.

교황이 아프리카대륙을 방문한것은 80년의 자이레, 케냐, 가나, 오트볼타, 코트디브와르 순방에 이어 두번째다. 모든 종교가 교세확장을 기본적인 教義로삼고있듯 교황의 아프리카순방역시 검은대륙에 대한『福音전파』에 큰 목표를두고있음은 물론이다.

아프리카대륙에서의 가톨릭의 교세는 날로 성장하고있다. 1950년에는 2천만명에 불과했던 아프리카의 가톨릭신도수는 80년에 5천만으로 늘어났고 2천년까지는 5억정도의 아프리카주민중 18%가 가톨릭에 귀의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가톨릭의 아프리카 진출에 가장큰장애요소는 바로 이슬람. 이슬람 역시 아프리카대륙에서 날로教勢를 키워나가고있다. 이슬람측 주장에 따르면 사하라이남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2억6천만명중 1억가량이 이슬람교도라고 한다. 이슬람은 가톨릭과는 달리 一夫多妻制를 금하지도 않고, 교직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하지도 않기때문에 아프리카주민들에게 훨씬 잘 먹혀들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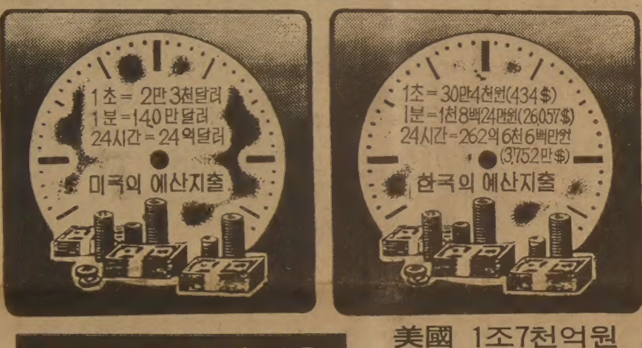
이슬람의 교세확장에는 아랍석유도 큰몫을 한다. 최근 리비아는 주민의 65%가 가톨릭인 부룬디공화국에 대학교를 설립해주기로했다. 국영방송이 이슬람을 방송하고 대학교에 아랍코스를 설치한것이다.

작년에 가톨릭과 이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낙태합법화 반대운동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도했다.

그러나 요한·바오로2세가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에 도착했을때 이슬람지도자들은 하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황은 아프리카에서 가톨릭과 이슬람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자신만만한 아프리카대륙의 이슬람세력은 혼자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인가.

아프리카대륙에서의 가톨릭과 이슬람의 교세대립의 귀추가 주목된다. 【朴永晳기자·外信部】



韓·美 하루豫算지출
美國 1조7천억원
한국 2 백62억원

◇레이건美 대통령은 최근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이 1초에 2만3천달러라는 엄청난템포로 나가고있다고 지적,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요인을 삭감토록 촉구했다. 우리정부도예산改革작업이란 口號아래 올들어 하루지출 2백62억6천6백만원규모의예산낭비및 비효율요인삭감작업을추진하고있는데 그림은 양국의 매초, 매분, 매일의 재정지출규모를 비교해서 나타낸 도표. (한국의경우 달러表示는 1달러當 700對1로 환산한것임)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金蘇東〉 ③

高普때의 추억
合格날 兄이사준 清料理맛못잊어
光州學生사건나자 同盟으로 抗日

일본인선생의 심술로 청운의 꿈이 무너지는 것일까. 합격자 발표일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않았다. 월반시도이긴 하지만 지난해 경성중학시험에 떨어지고 이번 시험에 또 낙방한다면 무슨 얼굴로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일어·산수시험을 잘 치렀다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합격자발표를 보러갔다. 교문을 들어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운동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키큰 어른들 틈에 끼여 합격자명단을 보았으나 내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은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가 큰소리로 내이름을 불렀다. 제일고보 졸업반인 金漢慶형(俞鎭午씨와 동기동창)이 자전거 짐받이 위에서 활짝 웃고 서있었다.

『붙었다, 붙었어! 합격했어!』

형은 나를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눈물이 왈칵 솟았다. 꿈만 같았다. 형이 돌이서 교문을 나섰다. 형은 나를 인사동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청요리를 사주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처음 먹어보는 청요리이기도 했지만 55년전 그 중국집「사동관」은 지금도 잊을수 없다. 지금은 그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仁寺洞을 지나려면「사동관」의 간판이 보이고 요리냄새가 나는것 같다.

◇第一高普 3학년때의 필자. 꿈많던 제일高普시절도 光州학생사건으로 시련을 겪었다.

변한 것은 仁寺洞만이 아니다. 花洞 옛교사도 역사의 수레바퀴속에 지금은 정독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몇년전 학교가 永東으로 옮겨갈때 우리 27회졸업동창생들이 모여 새 교정에 기념식수를 했다. 한그루의 은행나무였다.

학창시절의 그리운 추억들은 차차 기술하겠지만, 그 시절의 추억들을 반추하기 위해 백발이 성성한 옛학우들이 매월 27일 모임을 갖고 있다. 동창회장 林漢璟이 유명을달리해서 林仁淳학우가 뒤를 이어 모임을 주선한다.

1백11명이 졸업했으나 남은 학우는 2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가고 혹은 납북되었다.

의학계의 고주석, 곽인섬은 세상을 떠났다. 법조계에서 활동하던 임한경, 안문경도 저승객이된지 오래고, 서재원, 이주신등은 6·25때납북돼서 소식을 알길없다.

동창이란 언제 만나도 반갑고 정답다. 그 모임도 즐겁다. 옛친구들의 모습은 해가 갈수록 달라지지만 花洞교사에서 지식탐구를하며 다진 우정은 살아있다. 타임터널속에서 재생된 꿈인냥 아롱진다. 50여년전의 일이지만 5년전일만같다.

1930년 초겨울, 4학년을 마무리할즈음 光州학생사건이터져 학생들의 反日운동이 전국에 파급되었다.

광풀시간이었다. 경북榮州출신인 남승갑학우가 궐기선언문을 낭독했다.

「우리 다같이 光州학생들의 뒤를 따르자. 마음과 힘을합해 일어서자」는 내용이었다.

광풀담당 가지와라선생의 제지를 뿌리치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미류나무밑에 모였다.

『자 여러분! 光州고보학생들의 봉기를 전국학생들이 지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으로 들어갑시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단결해야 우리의 실력을 과시할수있읍니다』

대표학생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그때 이미 기마경찰들이 학교주변을 둘러싸고있어 우리는 해산할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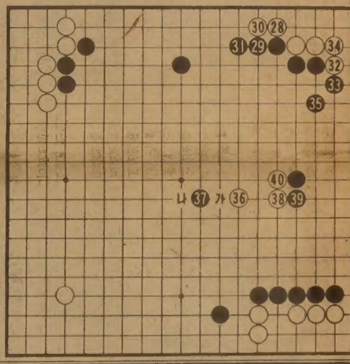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들은 반기를 거두지 않았다. 밤이면 교복상의를 뒤집어입고, 탈모와 고무신차림으로 학우들과 연락, 정보를 주고받았다.

며칠후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20여일을 파묻혀 지냈다. 주재소 일본인순경이 매일 한번씩 찾아와 동태를 살피곤 했다. 이제 학교를 그만 둬야겠다고 뜻을 굳혔다. 일제에 대한 반감에서였다.

얼마후 학교에서 보낸 통지가 날아들었다. 과거의 잘못은 일체 불문에 붙일테니 등교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불타오르는 反日사상을 억누르는것이 문제였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第2譜 28~40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壽鉉〈2勝2敗〉
黑(7段) 徐奉洙〈2勝1敗〉



화점바둑에서 3三침입은 아마추어들도 늘상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중급이하의 실력자라도 대개의 경우 본보 黑35까지의 과정을 어김없이 밟는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평범한 정석이고 때에따라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즉, 白28에 대하여 黑29로 30자리를 막는 참고도의 형도있다고 알아둘 일이다.

단지 참고도는 귀와 상변을 확보할 경우의 일이고 이바둑처럼 우변을 중시할때 白2이하 10이면 黑은 모처럼의 세력이 덧없이 무너진다.

따라서 徐7단은 실상 黑29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듯 단2분에 결정지었다. 과연 黑35까지 우변과 중앙쪽이 黑천지로 되었다. 가장 평범한 정석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거둔것이다.

白、果敢한 敵地突擊

[illegible] 4귀 [illegible] 생」을 한것이 눈에 띈다.

[illegible] 물론 黑의 대세력을 어떻게 깨느냐가 당면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하여 과감하게 白36. 그한줄옆인「가」자리에 얕게 들어가도 黑은 역시「나」로 씌울것이니 이왕이면 깊게 쳐들어가자는 배짱이다.

당연한 黑37의 모자에 대한 白38、40이 끈질긴 수단인데 黑은 이침략군을 어떻게 다스릴 요량인지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 金光培 畫 〈46〉

숨박꼭질 ㉝

『뭘 한숨씩이나 쉬고그래?』

일환이가 의아해서물었다.

『오빠 우리 저집 불질러버릴까?』

『뭐? 뭐라구?』

『사방에서 불을 싸지르구 도망쳐버리면 누가 그랬는지 알게 뭐야. 어차피 누가 살긴 틀린 집인걸』

『너 미쳤니?』

일환이의 작고 온전한 눈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당황해서 어쩔줄을 모르는 걸 목이는 어이없는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실상 그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고 생각 그 자체로 그녀의 울적한마음에 잠깐의 생기를 불어넣어둔건 사실이나 처음부터 실행할 생각이 있었던건 아니었기때문에 일환이의 고지식한 놀람은 되레 그녀를 낭패스럽게했다.

『괜히 한번 그래본 거야. 놀랄 거 없어』

『괜히 한 소리가 따로 있지』

『추워서 그랬나봐. 모닥불이라도 지피지않을래?』

『그래 그래. 우선 집으로 내려가자. 불 지필 건 거기도 많으니까. 참 배고프지? 내 선물보따리속에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어. 남비나 그릇도 구할수있을 거야』

일환이가 늘튼목소리를 내며 목이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목이는 일환이가 빼드렁니만 아니었어도, 내복만 깨끗했어도 조금쯤은 즐거울수도 있었을걸하는 생각으로피식 맥 빠진 웃음을 웃고 손을 오므렸다.

『오빤 저 집만 불 질러없애버리면 우리가 고아가아닌게 된대도 그럴 위인이 못돼』

『우린 이제 고아가 아니래두. 우린 우리의 가족을 가질수있는 어엿한 어른이 됐는데 왜 고아니?』

『우리의 가족?』

『그래 우리의 가족』

둘은 같은 소리를 전혀 느낌이 다르게 발음했다는걸 뒤늦게 깨닫고 서먹서먹해졌다. 목이는 서먹서먹한게 도리어 편했다. 둘사이에 잠시 있었던 친화감을 그녀는 무엇때문인지 세차게 도리질까지 해가며 몰아내려 들었다.

일환이가 붙박이 찬장속에서 찌그러진 양은그릇들을찾아내서 샘이 있는 골짜기로 들고내려가는걸 목이는 못본채 하고 여기저기 집안을 둘러 보았다. 쓸만한건 하나도 없었지만 고아원의 잔재는 구석구석에, 침실벽면 가득한 낙서위에도, 묵은 짠지처럼 센 간이 밴 불결한 조리대에도, 험악한 흉터가 가득한 마루방 사물함에도, 화장실 거미줄에 너울대는 음산한 바람의 자락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원장부부가 쓰던 방만이 가구를 모조리 옮겨가고 벽지도 비교적 깨끗해서 표정없이 다만 휘했다.

아이들이 다 따르고 좋아하던 원장과 아이들한테 인심을 못얻어 줄창 골탕만먹던 보모가 어느날 갑자기부부가되자 아이들은 밤마다 신방을 엿보고 제각기 해괴한 소문들을 만들어냈다. 그걸 견디다못해 미닫이문을없애고 해 단 튼튼한 도어의 니스칠이 아직도 싱싱하게번들대는게 이물스러웠지만 반갑기도해서 그녀는 미소지었다.

아이들이 안방이라 부르던 그 방을 돌아나오려는데 뭔가가 발끝에 걸리면서 문지방쪽으로 데구르르 굴러갔다. 주워올려보니 새까맣게 변색한 은(銀)노리개였다. 은행알만한 크기의 표주박모양을한 그 은노리개는 비록 본바탕은 변색했지만 칠보로 된 청홍의 줄무늬는 아직도 영롱했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발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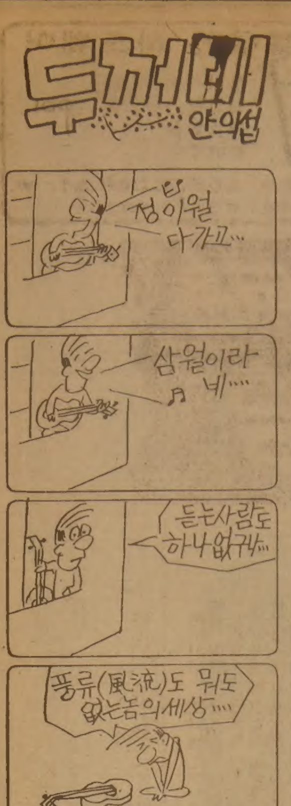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 국 일 보 발 송 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 하녀,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 역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매일붙위 무명등….
영화 -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 -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 - 영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쇼,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 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 팔도대향연,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향연,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 소망, 부부, 한국의 미, 일등가족등 10여편
기타 - 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 -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족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물 - 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엄의 요스, 정이의 세계여행, 하이틸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얄개시대, 호랑이 선생, 아장가, 인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 다이지마고, 레미제라블, 죽음의 요스, 집없는 아이, 서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변사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록키, 벤·후라워, 7인의 신부, 바람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리틀·다링스, 전화살인, 수리작전, 매브린 워커말출, 다이 하더들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매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W TORONTO MIDOPA 지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法廷 중계放送·사진촬영등 被告동의 있어야

大法회의 議決、公共이익될땐 例外

앞으로 법정안에서의 녹화 촬영중계방송등은 재판장이 피고인(민사 소송의 경우 원·피고)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판사회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정에서의 방청、촬영에관한 규칙개정안」을 의결、오는 3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피고인의 의견에 관계없이 재판장의 허가만으로 녹화、촬영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개정안은 재판장이 이 촬영등을허가하는것이 공공의 이익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촬영등을 허가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 개정안은 또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를얻어 허가를 할 경우에도 ▲공판 또는 변론시작전에 한해 촬영▲법단위에서의 촬영금지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은 수갑을풀어 불구속상태에서의 촬영▲소년범에 대해서는 성명·연령·직업·용모등에의해 본인으로 알려지지 않을 정도의 촬영등으로 허가요건을 제한했다.

被告人權 보호강화 (해설)

지금까지도 법정에서의 촬영등을 규제하는 법규정은 있었다.

법원조직법 제54조 2항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법에 따른 「법정에서의 방청·촬영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장에게법정에서의 촬영등을 허가받으려할때는 촬영목적·대상 시간등을 명시해야 한다」고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칙에 재판장의 허가요건으로써 먼저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반해 촬영당하지 않을권리」인 인격권과 초상권(肖像權)을 피고인이라도 누려야한다는 취지로써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할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보도·출판의 자유및 사회공익을 감안해 볼때 후자가 우선하다고 재판장이 판단할때는 피고인의 동의여부에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수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등장한 배경에는최근高淑鍾、朱永炯 피고인등에대한 공판과정에서 TV에 녹화촬영장면이 너무 길게방영되는 사례등에 대해 대법원판사들이 우려하는 의견을 나타냈던 것이 반영된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법정내에서의 사진촬영이 전면금지돼있고 위반때에는 벌금형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사진촬영은 물론 피고인 초상화나 법정안 사생(스케치)도금지하고 있고 서독과 일본의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개정전 촬영에한해 허가하도록 돼있다.

刑事피의자、入院中도주

25일 새벽5시10분께 서울中區乙支路6街 국립의료원509호실에 입원중이던 형사피의자 崔鍾坤씨(23·전과6범·서울鍾路區昌成洞111의 3의2)가 전경대원의 감시소홀을틈타 환자복 차림으로 도망쳤다.

崔씨는 지난19일 존속폭행혐의로 구속돼 서울東大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었는데 21일새벽2시께 급성맹장염증세를 일으켜 국립의료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었다.

淑大 藥學館에불 과산화수소 引火

25일하오2시께 서울龍山區靑坡洞 淑明女大내 약대 약학관 4층 연구실에서 불이나 11평내부를태워 1백만원의 재산피해를낸뒤 15분만에 꺼졌다.

출동警察官 카빈誤發 1명 죽고 1명 負傷

【釜山=聯】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는 주민들을 단속하러나갔던 경찰관이 카빈총을 오발、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5일 새벽1시20분께 경남 巨濟郡長木面外浦里 금호다방앞 길에서 長木지서 外浦어선신고서에 근무하는 金종윤순경(28)이 카빈총을 오발、이마을 실비식당주인 李수관씨(52)가 복부관통상으로 그자리에서 숨지고 李씨옆에있던 같은마을 金춘근씨(29·선원)가 중상을 입었다.

金순경은 이날 식당에서 이마을 朴재수씨(21)등 선원3명이 술을마시고 싸운다는 신고를받고출동、이들을 말리자 金순경의 팔을때리는등 행패를부리는데 격분해초소에둔 카빈총을 갖고와저지하는데도 이들이계속 행패를 부리자 개머리판으로 말리다 장전돼있던 총이오발돼 사고를냈다는것.

부동산假登記抹消 채권자 인감첨부

대법원판사회의는 25일 부동산가등기를 말소할경우 가등기명의인(채권자)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등기말소때 인감증명이 필요없던것을악용 ▲사채업자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돈을빌려주고 담보부동산을 자기앞으로 가등기하면서 이름·주소등을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감증명이 없어도 가등기말소신청이 가능한것을 틈타 가등기필증이 채권채무관계의 담보물로 이용되는 사례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가등기 말소시에 인감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을 가등기할때도 가명등을 사용할수 없게됐다.

사우디王子 회사취업…公金횡령

한국인 勤勞者「斷手刑」모면

한국대사관서 일부 辨償

서울江西경찰서는 25일 사우디아라비아「만술」왕자가 경영하는 사진현상소에 근무하면서 회사공금등 5만4천7백18리얄(한화1천1백32만여원)을 횡령한 朴龍河씨(37·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238의24)를 직업안정법위반·사기·횡령등혐의로 구속했다.

朴씨는 최근 횡령사실이 발각돼 사우디아라비아 사직당국에 사기및 횡령혐의로 구속돼 현지법에따라 단수(斷手)형에처하게돼있었으나 한국대사관이가로챈돈일부를대신물어주고신병을인계받아왔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지난해 7월9일부터 1년계약으로 알콧세이드 종합회사의 컬러필름현상기사로 입해오면서 현상소 수입금 3만7천리얄과 「만술」왕자가 운영비로준 7천4백50리얄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모두5만4천7백18리얄을 착복한 혐의다.

서울大 大學新聞 12週만에 復刊

서울大 교내신문인「大學新聞」이 발행중지 12주만에 26일자로 복간됐다.

대학신문은 지난해10월말 교내사태로 학생기자들이 사표를 제출해 발행을 중지해오다 졸업일인 26일을 맞아 다시 발행된 것.

◇美國으로 떠나는 월남난민들。이들은 한결같이 제2의 조국이나 다름없는 한국을 잊지않겠다고 말했다。

"보호해준 한국에 감사" 월남 海上難民 48명向美

대한적십자사 釜山보호소에 수용중이던 베트남난민 48명이 25일 낮 NWA기편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군장교、의사、변호사、교사등 48명의 난민들은 지난75년 월남패망후 공산치하를 탈출、배를타고 바다에서 떠돌다 우리나라에와 수용돼왔다.

이날 미국으로떠난 동방빈씨(47·전주월미국대사관직원)는 「나라없는 설움은 당해보지않은 사람은 모른다」면서 「우리를 보호해준 한국과 우리들을받아준 미국에대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지난 75년이후 우리나라에서 보호중이던 월남난민들은 이번까지 모두5백96명이었으나 이번 모두5백16명이 제3국으로떠나 현재 우리나라에 수용된 난민은 80명이다.

基督교회協 메시지 오늘의敎會는 生命力 상실 3·1運動정신 再現시켜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金昭暎총무)는 제63회 3·1절 메시지를 발표、「3·1독립운동은 우리민족이 주권 주민으로서의 의식 뚜렷한 자유를 존중하며 평화를 갈구하는 자주·민족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운동이었다」고 회고했다.

金총무는 「3·1운동은 정의와 인도의 재현을 핵심으로한 운동이었으며 기독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준 운동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60년전의 생명력을 상실하여 자기도취와 비대증의 잠에서 깨어나지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金총무는 또 「일제의 마수는 사라졌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위기속에 살고있는 오늘、교회는 3·1운동에서와 같이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고 민중의 갈망에 호응하는 민중속의 교회로 경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3·1절기념 연합예배를 1일상오11시 기장총회장 朴炯圭목사를 강사로 새문안교회에서 갖는다.

四旬節 특별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하는 사순절 특별강론이 27일부터 매주土요일 하오5시 明洞대성당에서 열린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5주에걸쳐 실시될 강론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27일=鄭由龍주교(십자가의 현대적의미)▲3월6일=박홍神父(창조와 해방의 하느님)▲3월13일=송광섭神父(사랑과 일치의 성령)▲3월20일=이한택神父(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삶)▲3월27일=金壽煥추기경(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2~24人乘 自家用미니버스 뒷거래 登錄많다

요즘 한참 인기가 오르고있는 소·중형버스의 자가용등록사무에 뒷거래가 성행하고있다。자가용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시행령이 현실에 맞지않아 소·중형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할수없이 편법을 사용하고있기때문。그래서 등록사무소 주변에서는 이버스를 등록하면서 공공연하게 10~20만원의 웃돈을 건네고있다。

공공연히 10~20萬원 오가

창구職員 접수마저 거부일쑤 "代行業所서 알아보라"

개인規制조항없애야

◇盛業…대행업소 서울江南區 三成洞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소 주변에 밀집한 등록대행업소들。

25일하오3시 서울江南區三成洞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민원창구 앞에 서류뭉치를 든 30대청년이 「자격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차가필요하니 등록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있다。그러나 창구직원은 접수마저거부 실랑이끝에 민원인이 발길을돌리자 「건너편 대행업소에가서 알아보라」고 알듯모를듯한 말을 던진다。

이순간 또다른창구에서는 대행업소직원인듯한 잠바차림의 청년이 민원인에게 접근 「등록하는 방법이있으니 따라오라」며 끌고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해서 관리사업소 주변의 대행업소에 가면 「원칙상 등록은 안되지만 수수료 1만원외에 웃돈 10~20만원만 더쓰면 처리해주겠다」는 장담이 나온다。

이같은 뒷거래에 대비나한듯 사업소주변에는 자동차메이커에서 직접차린 등록대행업소도 많은데 사업소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번거로와 이 대행업소를 찾아가면 자격미달일 경우처음엔 곤란하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나오려면 직원이 얼른뒤따라나와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다」며 갖은 방법을 일러준다。

또 실제로 사업소에서는 접수조차안되는 일이 대행업소에 웃돈을 주면 2~3일내에 등록을 끝내주는게 현실이다。

주로 12~24인승 합승버스의 자가용등록이 이처럼 까다로운것은 서울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자가용영업행위규제조항때문인데 이시행령에 의하면 자가용사용신고자는 사업자 등록원·사본과함께 승차인원의 배이상이 넘는 종업원의 갑근세증명이나 갑근세 면제자가있을경우 이를 증명하는 동사무소확인서류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자가용차량등록을 받아주게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또는 낚시회나 심지어 복덕방、교회등지에서는 이갑은조건에 합당하지 않기때문에 대행업소를 찾아 편법을 쓸수밖에 없다는것。

대행업소직원들은 「관리사업소의 담당직원과 유대관계가 깊어 변칙적으로 할수있다」고 장담하고있는데 자동차관리사업소 주변에는 30여개의 대행업소가성업중이다。

대행업소와 관리사업소간의 이같은 부정이 가능한 것은 자가용사용신고때 첨부하는 「승차인원 배이상의 종업원 갑근세증명원」때문인데 사업소직원이 자격을 판단하는 서류일뿐이다。

관리사업소측은 「낚시회나 복덕방등 소·중형버스가 필요치않는 곳에서 자가용영업행위를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규제하기위해 자격기준을 따지나 다소 자격미달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등록을 받아준다」고 설명하고있지만 사실상 타당성은 거의 인정되지않고있는 실정이다。

또 대행업소 직원들도 「사실상 서울시 자동차등록사업법시행령의 자가용영업행위규제조항은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만 사면 자격미달의 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등록할수있다」고 덧붙였다。

7명의 종업원을둔 崔모씨(37)는 12인승 봉고코치를 구입、종업원이 승차인원의 배가 되지 않는다고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대행업소에 웃돈 10만원을 주고 등록을 마쳤다。

崔씨는 「종업원이 5~10명인 중소기업의 미니버스는 대부분 이런식으로 등록을마친것」이라며 「자격을 규제한 시행령은 부정을 위한 시행령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중형버스가인기를 끌고있는 이유는 세금이나 유지비등에서 소형승용차에 비해 엄청나게 싸기때문。

12인승 봉고코치의경우 1일 기름값이 2~3천원、매분기 세금이 1만1천원으로 포니승용차의 1일기름값 5천원~1만원、매분기 세금 7만8천원에 비해 4분의1에서 5분의1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승차인원이많고 실내가넓어 다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는 잇점도 있기때문에 종업원수가 적은 사업주들이 다투어 소형버스를 구입하고 있고 소형승용차를쓰던 사업주들도 소형버스로 바꾸는가하면 자가용영업행위를 원하는사람들까지 웃돈을 주면서 구입하고있다。

서울시 자동차관리 사무소엔 하루평균 1백여대의 소·중형버스가 이런식으로 등록을 하고있는데 사업소집계에 따르면 1월말현재 16인승이하의 승합차량 등록댓수가 3천4백63대인데、이중관용이 1백7대、영업용이 31대뿐인데비해 자가용은 무려 3천2백98대나됐다。

또 17인승이상 25인승이하는 1천4백88대였는데 이중 자가용이 7백13대였고 관용은 1백18대였다。【方政俊기자】

日호텔火災 사망자중 5人유족 補償金2천만엔 合意

【東京=宋孝彬특파원】뉴·저팬호텔화재 한국인 희생자 8명중 란체스터관매전략연구소소속 사망자5명의 유족들은 25일 호텔측이제안한대로 2천만엔씩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유족들은희생자崔正鉉씨의 친족인 재일동포실업인 李鍾鳴씨(전민단부단장)를 유족대리인으로 선정、보상합의사항을 위임했는데 李씨는 이날 요꼬이(橫井英樹)사장과 만난자리에서 「란체스터회소속사망자 5명은 보상금조로 1인당 2천만엔씩을받고 그밖의 청구는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것이다。

유족대리인 李씨는 이날합의를 마친뒤 「만족할만한 액수는 아니나 유족들이 고인의 생전의 지위와 명예등을 감안、금전문제로 다투고싶지않으며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고있어 그들의 뜻에따라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로써 李興桂씨를 제외한 4명의 유가족들은 이날자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별도루트를통해 보상합의에 임하고있는 마케팅연구소 소속 사망자3명의유가족들은 호텔측의 제안을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자유중국·일본인및 미국인 희생자유족들도 호텔측의 2천만엔 일률보상제의를 「인명경시태도」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호텔측은 다른사망자유가족들과도 2천만엔보상기준을 고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일본신문들은 25일자 조간1면또는 사회면톱기사로 한국인피해자의 두 단체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날합의가 다른 사망자보상협상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전망했다。

解雇앙심 종업원2명 食堂서 人質劇

24일 밤11시30분께 서울中區會賢洞1街1의15 성원분식(주인 李昌基·55)에서 해고당한 종업원 李元熙씨(25)와 金모군(19)등 2명이 동료여자종업원 姜美子양(17)과 黃貞實양(20)등 2명을 식칼로 위협、1시간 30분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李씨등은 이날 하오9시30분께 주인 李씨가 「여자종업원들과의 사이가 불미스럽다」며 나가 달라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주방장 金義珏씨에게 「당신이 고자질해 쫓겨나게됐다」며 주방식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데 金씨가 달아나자 대신 姜양등을 홀안에 몰아넣고 인질극을 벌였다。

高大·成大 졸업식 東國·淑明·檀大도

제75회 高麗대학교 졸업식이 25일 상오10시30분 본교교정에서 열려 박사63명、석사4백9명、학사2천25명을 배출했다。

李活재단 이사장 金元基교우회장、전교직원및 졸업생、학부모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金相浹高麗大총장은 식사를 통해 「80년을 전후해서 사회전반과 대학에 몰아닥친 무서운 단절과 혼미、침체와 위축에도 굴함이 없이 오직 인내와 의지로 이겨낸 졸업생과 학부모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전제하고 「언제 우리 땅에도 자유와 책임、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참다운 법치주의、그리고 상호존중과 공동합의에 기초한 사회연대의 선진적인 사회기반이 확립될수 있을는지、또 언제 우리나라 정치도 의회민주주의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진적인 선례에 따라갈수 있는 정치적 성숙의 경지에 이를수 있을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金총장은 또 「졸업생 여러분들은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로서 하나같이 선전분투하는가운데 각자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成均館大는 25일 상오11시 금잔디광장에서 8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9명、석사1백37명、학사1천6백22명을 배출했다。

이날 金歆洙총장은 「지식인으로서의여러분들의사명감은 막중하다」고 말하고 「조그만한 재능과 지식으로서 오만하지않고 성실하게 차분히 자기기반을 다져나가라」고 당부했다。

▲淑明女大는 25일 상오11시 졸업식을 갖고 박사1명、석사38명、학사1천84명을 배출했다。

▲檀國大도 이날 졸업식을 갖고 박사4명、석사86명、학사1천1백17명을 배출했다。

▲東國大는 이날 상오10시 동교운동장에서 졸업식을갖고 박사6명、석사1백34명、학사1천3백76명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제6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출전자격 : 만17세~25세 미혼한인여성.
미녀 출전 신청마감 : 4월10일 하오5시
접 수 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연락전화 : (416) 533-2361~4
진행과정 : 하오6 : 00~7 : 00—칵테일
" 7 : 00~8 : 00—디너(만찬)
" 8 : 00~10 : 00—미인대회
" 10 : 00~10 : 30—연예인쇼
" 10 : 30~11 : 00—심사발표및 시상
" 11 : 00~1 : 00—댄스파티
입 장 료 : $30.00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6월에 열릴 「스포렉스 코리아 82」규모와 현황

全世界 스포츠·레저用品 서울에 총 集合

86아시아 올림픽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세계의 내노라하는 스포츠및 레저용품이 서울에모여 한 자리에서 선을 보인다。國民體育振興財團과 (株)國際展覽이 공동주최하는 「스포렉스 코리아 82」는 오는 6월22일부터 27일까지 韓國綜合展示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전시회를 목표로 이미 국내외 58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끝내고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있다。본격적인 올림픽 무드의 첫 章을 연 스포렉스 82의 준비현황과 이 전시회가 거두는 각종 효과를 살펴보면…。

◇오는 6월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최초의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가 열리는 한국종합전시장。

국내외 58개業體가 이미接受
6월22일부터 綜合展示場서

◇外貨획득에 큰成果

스포렉스 코리아 82의 목적은 88년 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국내 스포츠用具와 레저用品 제조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맨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출품대상품목은 ·체육관 시설물、屋外및 屋內스포츠用具、水上및 水中器具、캠핑장비및 정원시설물、스포츠및 레저用 의류、冬季 스포츠用具와 用品、레저장비및 신체보호장비、기타 스포츠에 관련되는 모든 제품들이다。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올림픽 개최 예정국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열렸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는 시카고 매코믹 프레이스에서 미국 최대의 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가 열려 큰 호황을 보였다。

이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일반공개는 하지않고 스포츠관계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음 3일간은 체육관계자와 업자、기술자、바이어등에게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흘은 일반인에게 관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위해 2년전부터 준비에 나선 國際展覽의 鄭文사장은 스포렉스는 개최될때마다 다양한 효과를 거둔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전시 참가 메이커측에서 보면 自社제품을 선전하면서 재품을 판매할 수 있고 외국제품과 비교·분석해서 기술개발을 피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국가적으로 봐도 수많은 외국업체와 바이어들을 유치함에따라 관광유치 이상의 외화 가득 효과를 거둘수 있고 복합적인 기술개발을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에 의한 광고수입도 얻을 수 있는등 부차적인 알파요인이 많다。

이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시회는 올해를 깃점으로 해마다 연례행사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88년에 피크를 이루게 된다。

스포렉스 코리아는 단순한 관람행사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끼리의 세미나도 열고 제품매매、합작투자계약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스포츠·레저용품 업계는 한단계 더 도약할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게 되는것이다。

◇綜合商社 대거進出

주최측에 따르면 15일 현재 접수된 업체는 외국이 35개、국내가 23개업체로 총 58개업체ㅡ。국내업체는 외국업체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말로 1차 마감한 대신、외국업체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내외 참가업체는 훨씬 더 늘어날 추세다。

이미 접수된 업체중에는 국내외의 대표급 메이커들이 거의 다 망라돼 있다。

그중 외국메이커중 대표급 업체는 스포츠웨어、스포츠슈즈、用具메이커인 독일의 「아디다스」(신청면적 1백㎡)、일본의 볼메이커 「아식스」(50㎡)、日本 2위 「미즈노」(48㎡)、이탈리아 볼메이커 「스파다」(60㎡)、영국의 「닐센 인터내셔널」、네덜란드의 「폴디트」、미국의 「나이키」、대만의 「J·S·스포츠컴퍼니」등 모두 일류급들인데 내년 2회째는 각국의 볼메이커가 모두 참가

올림픽 무드의 첫 章열려

◇전세계의 대표급 스포츠레저용품이 한자리에 모이게될 특별전시장。이미 쟁쟁한 국내외업체들이 출품신청을 마쳤다。

獨아디다스·美나이키등 大메이커들 參加
製品宣傳·기술開發·合作投資등 이뤄지고

할 뜻을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 홍보관이 1백50㎡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가 국내업체용이다。

참가신청 업체중 대표급은 大宇(레저용품·스포츠·캠핑用具、60㎡)、三星(레저용 의류·스포츠장비、1백50㎡)、코오롱商社(레저용 의류·스포츠장비、1백㎡)、鮮京(레저용품·스포츠슈즈·스포츠웨어·자전거、1백20㎡)、효성물산(스포츠및 레저용품、1백㎡)、半島商事(낚시용구·캠핑장비、1백㎡)、國際商事(스포츠 용품·스포츠화、60㎡)、나이키(슈즈、50㎡)、낫소(볼)、테이코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개발한 물품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그중 축구공·탁구공·정구공 등은 국제공인을 받고 있고 스포츠웨어도 수준급이지만 스포츠·레저시설기자재는 거의 개발이 안된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 얘기다。

그동안 많은 체육관 시설이 들어섰지만 거의 외국제품으로 꾸며졌고 얼마전 롯데호텔안에 새로 시설된 체육관도 주로 일본제품을 썼을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는 三星、大宇등 종합상사들이 이 업계에 진출한데 이어 롯데그룹에서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江西物産」등 중소기업들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스포츠·레저용품 업계는 터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 메이커들은 현재 각종 시설기자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인조잔디、전광판、전광판시계 등이 특히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各種展示會로 交易증진

스포렉스 코리아 82가 열릴 한국종합전시장(江南구三成동)은 이미 총 3천2백42평 규모의 특별전시장을 새로 단장、3월부터 밀어닥칠 전세계의 스포츠·레저용품전시에 대비하면서 국내외 관람객을 맞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종합전시장은 79년7월 개장된 이래、그 시설과 운용면에서 국제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런 여건아래 지난2년반동안 우협産 공작기계展、81서울交易展、국제플래스틱·고무展、한국우수가구展、어린이敎具및 완구展등 총 33개에 이르는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이 기간중 이곳 창구를 통해 33억달러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두는 한편 세계각국의 바이어를 대거 유치、무역증진을 가속화시켰는데 국내외 내방인원은 약1백60만명(하루2천3백명)에 달하며 등록된 외국바이어만도 1백17개국으로부터 1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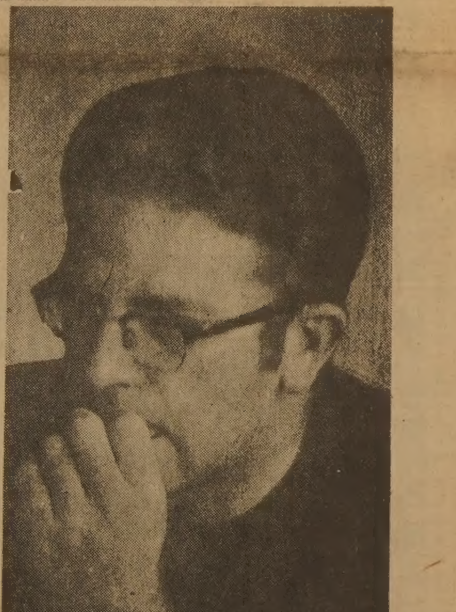
또 지난해부터는 코스타리카대롱레을 비롯、스와질랜드 수상、태국 商務長官등 60개국으로부터 대통령1명、수상급 2명을 포함 1백여명의 고위관리및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다녀가는바람에 교역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시장측은 전하고있다。

한국종합전시장에서는 올해에도 6월「스포렉스 코리아 82」에 이어 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82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여는등 모두 6개 전시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承〉

異色話題

에이레 出身 갈색머리 神父
케빈·오록교수 國文学博士 학위받아

延世大서、한국 初創期 詩人 金素月 金億의 詩 研究로



◇국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에이레 出身 케빈·오록 神父。

『한마디로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표현밖에 더 할말이 없읍니다‥』지난 22일 延世大에서 國文學博士학위를 받은 케빈·오록씨(43)의 또렷한 한국말이었다。吳鹿이라는 한국이름도 갖고있는 갈색머리의 사나이는 현재 聖콜럼반會소속의 에이레출신 가톨릭神父。그동안 慶熙大 英文學교수를 지내면서 한국詩와 小說을 연구해온 그는 마침내 우리나라 현대문학초기 시인인 金億과 金素月의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기에 이른 것이다。그가 내놓은 학위논문제목은「韓國近代詩에 있어서 英詩의 受容硏究」。이미 69년에도「20년대 한국단편과 자연주의」로 역시 延世大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이번엔 같은 시대의 詩연구로 2중의 영광을 안은 셈이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延世大한국어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웠지요。그후 2년간은 春川성당에서 보좌신부를 지냈읍니다。그러나 이뒤부터는 계속 대학에 머물면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일 이라든지、학생들을 상대로 영문학강의만 했읍니다。』

오록神父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64년 그의 나이 24세때였다。고향 더블랜드市에서 聖콜럼반大신학교를 나온 바로 그해의 일이었다。

그가 속한 콜럼반會는 1918년 中國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생긴 가톨릭단체。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곳에서의 활동은 종지부를 찍게 됐고、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東南亞제국이었다。

이 會의 특징은 독같은 神父이면서도 반드시 聖職에만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다시말해 여타의 문화사업에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이같은 소속會의 성격이 결국 그로하여금 한국에서의 국문학박사학위를 가능케한 요인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聖堂보다 大學찾아다니며 연구에 몰두

그실 오록神父는 한국에온 3년여뒤부터 聖堂대신 大學에 파묻히기 시작、江原大·國民大 등에서 英文學을 강의했고、지금 몸담고 있는 慶熙大에서만 6년째가 된다。이 과정에서 그는 특히 우리 문학작품의 英譯에 주력、金東仁의「감자」를 비롯해 崔仁浩의「他人의 房」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단편소설 10편을 묶어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 출간한 바 있다。또 趙炳華씨의 詩를 집중적으로 英譯、3권의 책으로 냈는가 하면 최근엔 時調번역에 몰두、이미 3백여首를 끝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았어요。時調의 배경 연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책으로 펴 내는 일은 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최대 목표가 한국時調史의 편찬이라고 밝힌 오록神父는 이미 67년과 68년 2년동안 연이어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의 영역만큼 힘들고 어려운 작업도 드물것입니다。그래서 가령 소설을 번역했을 때는 한국인 교수로부터 일일이 감수를 받아야 했읍니다。너무 철저히 감수를 받는 바람에 때로는 한페이지 번역에 하루를 보낸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詩나 時調의 경우엔 소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번역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작품의 배경이어서 이것만을 터득하면 빠르면 단 10분이면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詩가 다 쉬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詩는 6개월간 고생하면서 번역한 일도 있어요。또 50년대 이전의 소설은 主語나 動詞、目的語등이 영망으로 나열돼 있어서 작업에 훨씬 어렵기도 하구요。

하지만 50년대 이후 60∼70년대의 것들은 퍽 쉬운 편입니다。이것은 아마도 외국문학과 문법의 영향 탓이라 생각됩니다。예를 들면 金承鈺씨의 작품 따위가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면서 한가지 놀란것이 있었다고 전제、작품의 문학성을 그 실례로 들었다。

그리고는 멀지않아 한국문단의 염원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이땅에서도 나올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나의 박사학위논문주제가 金素月과 金億의 詩가 된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그들의 작품 경향이 같은 시대의 영국과 에이레등에서 소위 黃昏派라고 불리는 시인들과 비슷하게 닮은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착안했던 것입니다만、W·B·예이츠、아더·시먼즈등이 대표적인 黃昏派시인들입니다。』

에이레 黃昏派詩와 너무 닮아 主題로 선택
한국 文學을 서구에 소개하는덴 변함 없어

오록씨는 이들의 특징을 ①압박받는 민족에 대한 암시 ②가을 색채와 분위기 ③신비로움과 요정의 등장 ④우울·고독 ⑤경치 묘사의 상징적 사실주의등을 꼽았다。

『저의 논문에서도 밝혔읍니다만、素月과 金億의 詩중에는 황혼파의 詩와 비슷한 요소가 그렇게 많을수가 없읍니다。이것은 그동안 20년대에 한국에 번역 소개된 50여편의 황혼파 詩와 비교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자간의 서로 상이한 면도 예리하게 지적했다。

『가령 素月의「봄밤」과 시먼즈의「루나잇」(오늘밤)、金億의「友情」과 예이츠의「드링킹 송」(음주가)이 주는 이미지는 거의 같습니다。문제는 두 金씨의 詩에는 한국민족 고유의 정서가 가득하고、또 강력하다는 점입니다。동 詩의 표현형식도 전혀 다르구요。다만 金億과 金素月이 황혼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예이츠와 시먼즈의 詩를 많이 번역한데서 비롯됐다고 나는 봅니다。』

오록씨는 특히 두 金씨가 같은 시대를 산 大詩人 예이츠가 당시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하게 영국의 식민지로 전략돼있는 조국에 대해 우수깃든 詩를 많이 썼던데서 아마도 공통의 분위기를 느꼈을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향인 더블랜드市에 老母와 3兄을 두고있는 그는 가끔 에이레로 건너가 그들을 만나보는것도 즐거움인 중의 하나라고 했다。

『2년전에 다녀왔읍니다만、올여름에도 또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록씨는 어떤 경우에건 이곳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한국문학을 서구에 소개하는 자신의 일에는 추호의 변함도 있을수 없다고 못박았다。

〈吳泰基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61년12월21일, 李承晩대통령의 경호책임자였던 郭永周와 李丁載 주먹師團에서 주먹 정권의 2代교주로 그 권세를 천하에 누렸던 林和秀가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됐다. 郭과 林이 李丁載의 사무실에서 李의 소개로 「형님」「동생」의 인연을 맺은게 54년 가을이었으니까 이들 의형제 둘이서 죽이 척척 맞아 권력과 폭력을 휘두른 세월은 장장 7년여—. 둘은 생일이 2월28일로 같고 출생지 利川과 驪州고을이 同鄕과 같다해서 합동으로 생일잔치를 치러온 사이였으며 처형된 날도 같은 날이었으니 忌日 또한 같아진 셈이다. 景武臺 최고 측근의 하나였던 郭永周와, 美人計와 주먹을 휘두르며 「연예가의 폭군」으로 행세했던 50년대의 怪傑 林和秀편 「제1共和國」—.

實錄 第1共和國을 주름잡은 주먹들

林和秀편 (中)

◇林和秀와 郭永周사이

林和秀는 1920년생으로 京畿道驪州郡 강천면가야리에서 농사를 짓는 權모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林和秀의 본명은 權和秀이다. 세 살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權重珏을 데리고 서울의 林씨에게 재가, 權重珏은 林和秀로 바뀌었던것.

의붓아버지 林씨는 영화나 연극 선전을 하기 위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피리·깡깡이와 북으로 연주를 하며 거리를 도는 조라치였고 어머니는 동대문시장에서 팥죽을 파는 행상이었다.

林和秀는 그의 어머니 월대로 나이 먹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국민학교과정의 공민학교 忠信학원(효제동)에 입학했지만 공부하기가 싫어 제일극장(日人미나도씨소유)주변을 서성거리며 조라치들의 깃대잡이를 했다. 공짜구경도하고 극장 청소도 하면서 소년 불량배가 된것이다. 극장안에서 센베이등 과자를 메고 장사도 했고, 극장주위 구석구석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칼을 숨겨두고는 싸움이 벌어져 힘에 밀릴때엔 칼을 들고 덤벼드는 독종으로 자랐다. 그러나 소매치기죄로 41년부터 2년간 開城형무소에서 복역했는데 이때 취침·기상나팔을 불었다고 하며, 조라치시절 익혔던 솜씨가 제법이었다고 한다.

해방 전해엔 장물취득죄로 또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제일극장주변의 패권을 잡았고, 주먹족보로는 優美館의 긴또장(金斗漢)을 오야붕으로 섬겼다.

林이 평화극장(前계림극장·한일극장)의 사장이 된것은 53년 가을이었다. 이때 林은 李丁載 주먹사단의 제2인자였다. 따라서 동대문시장을 장악하고 대한청년단 특별단부의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는 李丁載가 점거하고 있는 평화극장 인수문제란 손바닥 하나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원래 이 극장은 일본인 미나도씨가 경영하다 해방과 더불어 적산이 된것을 李모씨가 불하를 받았으나 6·25때 빨갱이가 돼 행방불명, 李丁載일당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는데 54년초에 불하문제가 대두됐던것.

林은 6·25전쟁중인 51년 우연히 노름판에서 알게돼 5백만환의 거금까지 빌어 받아 무궁화악극단을 만들수 있었던 은인이자 釜山의 巨商인 S씨로부터 5천만환을 빌어 극장불하를 받았다. 이때 왕년의 오야붕 金斗漢씨가 林이 불하를 받도록 밀어줬고 林은 李丁載에게 손해는 돈으로 3백여만환을 주고 매달 5만환씩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결국 林은 11살때부터 드나들며 벼르던 극장사장의 꿈을 23년만에 성취했다.

林이 郭永周를 처음 만나 「형님」「동생」사이가 된것은 林이 평화극장사장이 된지 꼭1년뒤인 54년 가을 李丁載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林은 34세라고 했고 郭은 31세의 경무대경감—. 나이어린 郭이 「형님」이 되고 나이가 위인 林이 「동생」이 됐다.

林은 고향 여주와 郭의 고향 利川이 같은 고을이라는 점과 생일이 2월28일로 같은 奇緣임을 적절히 내세워 「형님작전」의 六韜三略을 전개, 세도가 郭을 구워삶아갔다. 합동으로 생일잔치를 열고

李丁載소개로 郭永周알고 義兄弟 맺어

同鄕에다 生日같은걸 구실삼아

林은 郭에게 美人計도 썼다. 그전까지만해도 돈이나 여자를 모르던 郭경감이었지만 林을 알고나서부터는 정반대의 생활이 시작됐다.

경무대 입구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있는 「보살집」과 역시 가까이 있는 淸雲洞의 「아마이 집」(淸雲閣)은 이들의 단골집이었다.

「보살집」의 보살(여사장 K씨)은 16살때 기생이 된 여자로 남자들을 주무르는 솜씨가 기막혔다고 하며 장안 갑부 B씨의 애인, 건국직후의 C장군, 대법관 H씨, B씨를 거쳤고 자유당시절엔 ○○국장 S씨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보살집」은 간판도 없는 비밀요정이지만 정·재계 요인들이 연줄연줄 찾는 곳이었고 수십개의 방은 방음장치까지 돼 있었다.

◇연예가의 폭군

방마다엔 조그만 別室이 달려있어 손님이 원하는대로 별실의 재미를 즐길수 있었고, 배우·기생에 심지어는 유부녀까지 보살은 동원하는 재주꾼이었다고 한다.

고관이나 세도가들이 출입하는 보살집의 「보살」을 林和秀는 「누님」으로 삼고 「보살」은 郭永周를 「오라버니」로 불렀으니 「누님좋고 오라버니좋고」—.

아뭏든 2월28일이 되면 「누님」은 「오라버니」와 「동생」을 불러 합동으로 생일파티를 열어 줬다.

청운각의 「아마이」는 아마이대로 술상을 차려놓고 경쟁적으로 郭과 林을 불러 郭이 57년 경무관이 됐을 때는 번질나게 이들 두 요정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경무대에서 가까와서 더욱 자주 들렀는데 밤 11시께부터 술을 마시곤 다음날 새벽 4시면 경무대로 돌아가는 정력절륜의 사나이였다.

郭은 56년6월15일 프란체스카여사의 56회생일에 총경으로 특진돼 경무대경찰서장이 됐고 다음해인 57년3월26일 李承晩대통령 81회생일에 경무관으로 특진됐다.

李대통령이 郭에게 『이젠 치안국장으로 가지!』했으나 郭은 이를 사양, 『가까이에서 모시는게 소원입니다』고 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최고측근자의 한사람이 됐다.

54년까지만 해도 돈과 여자를 멀리하고 전셋방으로 돌아다니다 종로구연건동에 겨우 조그만 집 한채를 마련했던 郭은, 林을 알게 된뒤인

郭에게 女優와 妓生들 小室로 바쳐

反共내세워 俳優들에게 주먹질 밥먹듯

55년초. 林의 소개로 육체파 여배우를 소실로 들여 앉히고 서울역 뒤에 집까지 마련해 줬다. 이어 장안에서 소문난 기생을 또 소실로 맞아 중학동에 집을 마련해 줬다.

이때즈음, 철저한 무식장이 林和秀였지만 폭력과 금력을 구사하고 美人計를 쓰면서 출세가도를 그의 자가용차 서울자 1280호 지프처럼 빠르게, 그리고 무법자로 달렸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광화문네거리를 질주해도 따라왔던 교통경찰차는 林和秀인것을 알고는 질겁을 하고 돌아서거나 경례까지 올려붙였다.

어느틈엔가 林은 「연예가의 대통령」이 돼 있었다.

58년3월4일 하오1시께 조선일보뒤 무대예술인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3·1절기념행사에 왜 안나왔어. 뇌가 대학을 나왔다고 건방지게.』

林和秀는 명치 큰 배우 朴巖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굶어 앉아. 이 ××야!』

林은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지 「주먹」들에게 朴씨를 데려다 혼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그 며칠 뒤엔 『왜 李無影선생한테 건방지게 구냐』면서 유명배우인 崔瀞鉉·金勝鎬·朱善泰씨등을 끌고와 주먹질, 발길질을 했다. 이 사무실엔 林의 부하 주먹들 10여명이 둘러서서 공포가 감돌았는데—

『최남현이 너 이리와!』

하곤 林은 崔씨를 옥상으로 끌고가 또 주먹질.

『야 ××야! 저 ××는 한강으로 끌고가 태워.』

林은 金勝鎬씨를 몹시 두들겨 주라고 林의 부하에게 명령했다.

부하는 부들부들 떠는 金勝鎬씨를 지프에 태우고 나가다 강원도 同鄕인 金씨를 아는터라 『맞은것처럼 얼굴에 흙을 바르고 옷도 찢으세요』라며 보아줬다. 이 부하는 金씨를 매맞은 몰골처럼 꾸며 다시 林에게 데려갔고 金씨는 몹시 맞아서 아픈 시늉을 하며 엄살, 연극을 했다.

그 이듬해인 59년2월중순엔 영보빌딩에 있는 한국연예주식회사 林和秀사장실에서 또 배우를 데려다 두들겼다. 영보빌딩은 郭永周의 소유이며 林이 전세를 들어 있었다.

『이 자식아! 내 허락없이 왜 다른 영화사에 멋대로 출연해!』

林은 尹一峰, 金振奎씨를 향해 악을 쓰고는 발길로 두 배우의 정강이를 내질렀다.

『건방진 ××들. 왜 말 안들어!』

李鍾哲·崔戊龍씨등 남자배우들을 때리고 J·H·K등 여배우들에게 따귀를 올려 붙였다. 林의 주먹이나 발길질은 매서웠고 안하무인이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때론 부하들을 시켜 주먹질을 밥먹듯 했다. 그러나 매맞은 배우 누구 하나 감히 林을 걸어 고소할 생각은 엄두도 못냈다.

拳銃위협받은 金喜甲씨 "그게 무엇하는 겁네" 웃자

林은 독이나 턱뼈·갈비뼈 부러뜨려…社會問題로

林은 반공예술인단 단장으로, 또 반공청년단 간부, 李丁載 주먹사단의 2代 실권자 승계를 받아 그의 절정의 시기를 그야말로 君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金喜甲씨 폭행사건이 터졌다.

59년 11월27일 하오2시께 서울 대원호텔 근처인 스타다방 3층의 반공예술인단단장실에서 林은 金喜甲씨를 세워 놓고 권총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金喜甲씨는 권총앞에서도 태연했다.

오히려 『그게 무엇하는 겁네』하고 웃었다. 林은 독이 바짝 올라 권총을 치우고는 그의 장기인 아고(턱)돌리기 일격을 날렸다.

金씨는 턱뼈가 빠지면서 쓰러졌다. 쓰러진 金의 가슴을 林은 발로 힘껏 내리쳤다.

金씨는 기절해 인근 白병원에 입원했다. 金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林계열의 흥행사인 C씨가 金喜甲씨와 합의도 없이 『국도극장무대에 출연한다』고 선전을 해놓자 金씨가 이를 합의하고 무대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林은 반공예술인단의 연기분과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던 金勝鎬씨를 白병원에 누워있는 金喜甲씨에게 보내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강압을 넣었다.

金喜甲씨는 이를 악물고 전체 예술인의 장래와 명예를 위해 林과 싸울것을 결심하고 합의를 거절했다.

◇「林和秀 長官」說

金喜甲씨는 고향인 함경도長津의 국민학교 동창으로 평소 가까이 지내온 朝鮮日報 사회부장 朴聖煥씨가 병원에 오자 진상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林과 반공예술인단에서는 金喜甲씨를 때린것은 林단장이 아니라 부단장 朴鵬라며 성명까지 냈었는데 이날 朴씨에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신문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고 사건발생 3일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그동안 중부경찰서의 C서장과 Y수사계장은 계속 金喜甲씨가 넘어지면서 다친것이라며 딴전만 부리다 신문들이 크게 문제로 삼자 마침내는 K모부장검사가 사건을 다루게 됐다.

종로4가 주먹부대 30여명이 金씨의 병실주위를 경계하고 N여배우는 金씨를 간호하는 체하며 林단장에게 병실 동정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金씨는 진상을 기자앞에 털어놓기가 겁났던 것이다.

그뿐아니라 林은 12월2일 서울시경에 출두해서 『박호가 때렸는데 세상은 내가 때린걸로 오해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었다.

金씨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쯤 됐음은 더 참을수 없었다.

林은 金씨의 진상 폭로후 1주일간을 계속 공격하는 신문들에 더 견딜수 없게 되자 제발로 걸어 중부경찰서로 찾아가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경찰에 구속지시를 해도 경찰은 『林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구속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재주는 재주다. 林은 12월9일 벌금3만환을 물고 약식기소로 풀려나왔다.

연예가의 無法者 林은 金喜甲씨에게 어쨌든 한 열 크게 물어뜯긴 꼴이 됐다. 이후부터 4·19때까지 金씨는 林의 「괘씸죄」에 걸려 무대와 영화에 출연할수가 없었다.

감독들은 金씨를 출연시키고 싶어도 林의 감시와 보복이 두려워 어쩔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예가의 절대권력을 움켜진 林은 배우를 하루 아침에 유명해지는 주연으로 발탁할 수도 있었고 출연을 정지시켜 밥줄을 끊어놓을수도 있었다.

新人女俳優養成所차려 當代의 權力者들에게 美人計작전

郭은 "林사장은 文教部長官해도 잘할 사람"이라 감싸고

애송이 신인배우 J양이 갑자기 주연을 맡아 「벼락주연」의 비밀이 무엇인가 쑥덕공론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林이 차린 신인여배우양성소는, 이곳을 거친 9명의 미인배우가 林의 美人計작전에 동원됐던 것으로 보아 林의 특수목적을 위한 전위대였던것 같다.

林의 美人計 대상은 郭경무관뿐이 아니었다. 「귀하신 몸」李康石(李起鵬장남·李대통령양자)을 비롯해 당대의 권력자들 여럿을 대상으로 했던것 같다.

金喜甲씨에 대한 폭행사건 1년전인 58년 초봄에는 「林和秀문교부장관설」이 나돌아 세상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는데—.

58년2월16일 釜山에서 승객 28명을 태우고 서울로 오던 KNA여객기 창랑호가 납북된뒤 이해 3월6일 납치범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송환돼 서울시청앞 광장에선 대대적인 환영대회가 열렸다. 이때 연예계의 폭군 林은 연예인들을 총동원해 환영대회를 열었는데 대회식장에서 녹음을 하던 치안국특정과 L형사를 林이 때려눕힌 사건이 터졌다.

환영대회 연단 뒤에서 명치 큰 L형사를 일격에 쓰러뜨리고 치안국특정과장실로 불려간 林은 특정과장으로부터 욕을 먹고 입건하겠다는 말을 듣자 林은 책상을 치고 문을 발길로 걷어차고 나왔다.

林은 그 길로 지프를 타고 서린동 영보빌딩 사무실로 돌아가선 郭경무관을 경비전화로 찾았다.

『형님이오. 나 이거 참 나라 위해 큰 일좀 하려는데 이래 가지고야 무슨 일을 하겠수. 오늘 말이유 기가 막혀서…』

자초지종이야 무슨 문제랴— 林이라면 껌뻑하는 郭은 치안국으로 달려갔다. 치안국장실 소파에 앉아서 특정과장을 부르고는 『여보, 林사장은 문교부장관을 해도 잘할 사람이오. 엉뚱한 생각일랑 아예 집어치우시오!』

같은 경무관 사이였지만 경무대의 郭과 특정과장사이란 세도가 하늘과 땅같은 차이—. 특정과장을 몰아세운 郭은 林을 감싸며 호통을 치고 나왔다.

이때부터 시중에는 「林和秀문교부장관설」이 나돈것.

郭의 소개로 李大統領뵙곤 눈물 비쏟듯…

"아버님, 저예요"하며 自稱 수양아들 演技

◇狐假虎威

林은 무궁화악극단시절부터 「반공」을 내세우며 악극단을 이끌고 일선장병위문공연을 자주 했었다. KNA송환환영대회도 그중의 하나였다.

이같은 「반공」경력이 강조돼 소문이 난데다 郭경무관의 소개로 林은 李대통령을 알현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코미디언 홀쭉이(梁錫天)등 배우들과 함께 58년3월 李대통령을 방문했을때 林은 눈물을 비쏟듯 감격 하면서—

『아휴 아버님, 저예요, 저, 지가 왔읍니다』며 허리를 조아렸다.

李대통령은 『임자가 반공을 마아니 한다지』하며 치하했고, 일방적인 林의 「아버님」연기로 林은 대통령의 수양아들이 된 셈.

林은 경무대에서도 자기가 만든 영화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

林이 한국연예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만든 영화는 대부분이 코미디물이었다. 희극영화 「청춘쌍곡선」「실례했읍니다」「五父子」「한번만 봐주세요」등으로 돈을 잘 벌었다.

林은 이런 영화를 만들때마다 서대문 李起鵬씨집으로 필름을 가져가 돌렸는데 출연배우까지 데리고갔다.

「높은 집」에 드나들기 위한 구실로 삼은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영화가 끝나면 李起鵬은 양주를 내놓았는데 이런 기회에 사진을 찍어두려고 높은 집 사진사들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주곤 했다.

「높은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은 크게 확대해 林의 사무실과 필요한 장소에 걸어두고 狐假虎威했음은 물론이다.

林이 自由黨정권의 실력자 李起鵬과 인연을 가질수 있었던것은 당시 明洞의 시공관 관장 B씨의 소개와 추천에 의해서였다. 林은 B씨를 「형님」으로 모셨다. B씨는 정계 요로에 줄이 닿고 明洞주먹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在野의 巨人이었다.

林은 「형님」B씨를 전국극장연합회 회장에 추대하고는 자신은 부회장 자리에 앉은 다음 B씨의 줄을 타고 李起鵬씨에게 접근했다.

『정치하시느라 머리가 얼마나 아프십니까. 오늘날 제가 만든 즐거운 영화로 머리를 식혀 드리겠읍니다』며 李起鵬씨앞에서 갖은 재롱을 다 떨며 「西大門경무대」를 자주 찾았다.

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林은 영화제작사상 유례없는 큰돈을 들여 「독립협회와 이승만」이라는 영화 제작에 착수, 西大門 출입은 더욱 잦았고 그와 비례해서 그의 無法행각은 더욱 가속적이 돼갔다.

한글 겨우 읽는 無識으로 公開演說 꺼려

林은 전국극장협회부회장, 한국영화제작자가협회부회장, 서울극장협회부회장, 한국무대예술원 부원장등등 부회장직을 많이 가졌다.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직을 주로 가진 이유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할 자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글을 간신히 읽을수 있는 정도의 무식에다 수표장 액수를 겨우 쓸줄을 아는게 그의 지식의 전부였다.

그러나 평화극장사장, 한국연예주식회사사장, 예술시보사 사장등, 세가지 만큼은 부사장이 아니라 사장이다. 무식했지만 하루 4시간밖에는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주먹이었으며 기억력과 숫자 암산이 특출해서 장부를 볼줄도 몰랐지만 금전출납은 정확히 관리했다고 한다.

언젠가 무궁화악극단 홀쭉이 梁錫天씨가 뱃이 뒤틀린 일이 있어 林을 골려줄 속셈으로 개런티를 더 받을게 있다고 돈을 요구했다. 당시 수십명의 무궁화악극단 단원들은 개런티 5만환씩을 5개월에 나눠받고 있었다. 돈들이 모두 궁한 판이라 나눠서 받는것도 기분이 나쁘고 해서 시치미를 떼고 더 받을것이 남았다고 했더니 林은 『어느날 얼마, 또 어느날 얼마, 얼마』하며 다섯번의 지불 액수와 지불 날짜를 짚어내더라는것이다.

李丁載는 李起鵬씨에 의해 利川 出馬區 뺏기자

주먹權座 물러나고 대신 林和秀가 앉아

◇주먹부대 事前投票

林和秀가 종로4가 李丁載 주먹사단의 一人者로 부상한 것은 58년 국회의원선거 직후다. 李丁載가 주먹왕시절을 통틀어 利川에다 그의 출마기반을 닦았는데, 西大門區에서 김산씨와 맞붙으면 당선가망이 없을것으로 판단한 李起鵬이 利川으로 출마구를 옮겨 李丁載의 지원을 요구했다. 李丁載는 선거구 양보만은 한사코 거부하다 빼앗긴 셈이 됐는데 이 일로 해서 「西大門」에선 李丁載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이때부터 李丁載는 주먹권좌에서 실각, 동대문시장자리를 지키기에도 급급했다. 집에서 금붕어나 키우고 李丁載의 權座엔 대신 林和秀가 앉게됐다.

주먹사단의 2世교주가 된 林和秀는 주먹부대를 李丁載로부터 이양 받고 전력을 정비·강화하는 한편 60년 정·부통령선거가 있기 한해전인 59년3월19일 반공예술인단을 결성했다. 李起鵬씨를 주축으로 6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행하려는 모의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반공예술인단이었는데 부정선거에 발맞추는 선전공작이 그 결성의 진의였음이 뒤에 밝혀졌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출현한 단체가 「대한반공청년단」이었다. 이 단체의 장은 처음 K씨가 맡았다가 사임, S씨가 맡았다.

대한반공청년단은 60년초에 자유당으로부터 1억환의 자금을 받아 전국적으로 2백만명의 단원을 조직에 끌어들이는게 당면 목표였는데 서울의 주먹들 대부분이 포섭됐다. 단, 明洞의 일부 주먹들만이 이 단체 가입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정치폭력을 싫어하는 明洞의 李모 보스가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인데 반공청년단은 부정선거를 위한 자유당전위부대로 「정치폭력」을 주특기로 했던것.

林和秀는 물론 이 단체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의 책임자가 됐고 그의 부하로 당대 別動부대 주먹 실력가인 Y씨로 하여금 동대문 특별단부를 만들게 했다.

60년 3·15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의 지령이 청년단부에 속속 내려졌다.

투표인을 얼마 알루고는 무더기로 사전투표를 하라는 지령이 청년단부에 하달됐다. 투표지 꾸러미까지 한꺼번에 말이다. 이들은 지프에 투표지를 싣고 다니며 무더기 투표를 했다. 어떤 곳에서는 너무 표를 많이 넣었다고 다시 꺼내라고 해서 법석을 벌기도 했다.

60년4월18일 청계천을 지나 종로4가로 향하던 고대생들이 천일백화점 앞에서 林和秀부하 주먹들의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두들겨맞고 학생 2명이 쓰러졌다. 주먹2명도 고대생에게 맞고 쓰러졌다.

동대문경찰서에 고대생 기숙 주먹들이 구속된 사실을 林은 보고받았다.

19일 고급요정 大河에서 郭과함께 술을 마시다 이를 보고받은 林은 화를 벌컥 내면서 郭경무관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했다.

『동대문 서장인가. 너 누가 구속하랬어. 이 자식아 다 석방시켜!』

구속된 주먹들은 다 풀려나왔다. 그러나 4월19일은 세상이 뒤집히던 날이었다. 그리고 李丁載·林和秀등 정치주먹의 7年城도 완전히 붕괴된 날이다.

그로부터 1년뒤인 61년 5·16혁명직후 기소돼 혁명재판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郭永周(37)·林和秀(41)는 이해 12월21일하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林炳鍾기자〉

다음號는 「나와바리 싸움」

◇희극배우 金喜甲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林和秀가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받고 곧 풀려나왔다.

◇金喜甲씨를 폭행한 林和秀가 구속되자 서울지검 K검사(가운데)를 [illegible] 관용을 호소하러 찾아간 반공예술인단 연기분과 위원장 金勝鎬씨와 [illegible]·許長江·黃貞順·金七星·崔戊龍·安鍾和씨— 이들은 『집안끼리의 싸움이니 집안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진정했다.

◇郭永周

◇林和秀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던 金喜甲씨.

色無壯士

한국의 妓生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朝鮮이 高麗의 妓生制度를 답습하였으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잦았다. 그렇지만 宮中의 잔치·제사에 女樂이 필요했고 邊方將卒을 위안하기 위해서도, 內外使臣 迎送에도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內地와 外地에 기생을 두었다. 그러나 朝鮮初期에 이러한 存置理由가 이미 변질되었고 여러가지 弊害를 낳았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是正하려는 일부 인사가 있었고 관습화한 수청을 마다하는 인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다. 누구건 남자는 女色에 굴복한다는 것이었다.

❤날마다 잔치

成俔이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外地에 使臣(外國使節行만이 아니고 地方出張者도 포함하는 의미임)으로 가면 관리들이 地境內에서 迎送하는데, 미리 주식을 갖추고 준비하였다가 邑에 들어오면 며칠 동안 머물게 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흠뻑 취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술이 깨어 있는 날이 없으니 이 때문에 병을 얻어 폐인이 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다. 송별할 때는 경치 좋은 山水를 골라 장막을 치고 소매를 붙잡아 놓지 아니하며 종일토록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은 宮의 돈을 없애서 날로 퇴폐해지고, 약은 자는 영리를 꾀하여 자기의 사복을 채우므로 官家가 날로 쓸쓸해지고 관리와 백성이 점차 초췌하여 그 괴로움은 견딜 수 없다。」〈慵齋叢話九〉

원인은 한국인이 人情이 많아서 그렇다.

풍부한 인정이 厚待케 하는데 후대가 손님이나 주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뿐인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잠자리시중이 필수적이었다. 매일 술에 취하고 女色에 취했다.

그런데 술과 여자에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창업일행을 접대하려고 평양기생들이 하룻밤에 너댓번이나 잠자리를 옮겼듯이, 한 기생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여 동로가 몸을 섞는 줄인가 하면, 심한 경우 父子가 같은 기생과 房事하는 예도 있었다.

❤同寢罰

平安監司 尹坤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상소했다. 그리고 王과 大臣·司諫院이 논란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은 곧 유야무야되었다.

世宗 元年(1419) 4월, 윤곤이 올린 상소문 全文에 당시 해괴한 妓俗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남성의 恥部를 펼처 보인 것이었다.

『사신들이 출장나가면 官妓와 사랑에 빠져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환락만 즐긴다. 상대할 기생을 얻지 못하면 비록 현명한 수령이더라도 이유없이 일을 트집잡아 죄를 얻는다. 같은 고을에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기생 때문에 종신토록 불화하는 경우도 있다. 수령은 법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법관이므로 姦淫犯法者를 마땅히 처벌해야 하나 도리어 손님이 오면 강제로 동침을 명령한다. 기생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한다. 한 집안에서 母女나 자매가 기생이 될 경우 이들이 같은 남자와 관계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일이 풍속을 어지럽히고 예의를 무너뜨리는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러한 풍습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괴이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使客이 기생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위반하면 수령과 사신을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기 바란다.』

왕이 禮曹로 하여금 政府및 六曹와 상의하여 결론을 내리라 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커녕 6월에 司諫院이 트집을 잡았다.

『윤곤의 상소가운데, 父子가 한 기생을 관계했고 모녀 혹은 자녀가 한 남자와 관계했다는 말은 너무 흉측하고 해괴한 말이니 웃사람을 농락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世宗은 元肅등에게,

『형제나 친족이 한 기생과 관계했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알고서 그런 짓을 한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간원의 상소는 옳지 못하다』하였다.

그리고는 마침 윤곤의 상소에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大小使臣이 官妓와 관계하지 말라는 禁令을 내렸다.

그러나 이 禁令을 지킨 수령이나 사신이 없었고, 지키지 않았다 하여 단속한 일도 없었다. 그러므로 기생의 性奉仕는 계속되었고, 父子·兄弟가 한 기생과 관계하거나 모녀·자매가 한 남자와 관계하는 패덕도 근절되지 않았다. 다만 志士를 자처하는 이가 나서서 기생의 수청을 물리침으로써 문란한 性俗을 정화하려 했다.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譚〉에 실려 있는 鵬(포者) 則鑑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다.

姦淫 다스려야 할 官長이 同寢거부했다고 罰주고
母女姉妹가 한男性과 관계…性風俗 크게 허물어져

❤君子의 즐거움

蔡壽가 內翰(職名)으로서 포쇄별감이 되어 史冊을 全州에 가져가 포쇄할 때의 일이다. 그는 전에 사대부가 고을에 봉사할 때 妓女들과 客舍에서 동침하여 자못 음탄하고 褻慢(설만)하므로 기녀가 賓館에 들지 말도록 各邑에 지시한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전주로 가는동안 各邑 수령들이 기생을 대령시키지 않았는데 전주에 이르러서는 공교롭게도 비가 한달간이나 퍼부어 史庫를 열지 못하고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보다못한 府尹이 判官더러 『年少史官이 오래 빈관에 머물고 있으나 영이 엄하여 감히 기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貴客을 이렇게 대접해서야 되겠나. 판관이 알아서 하시오』하였다.

비록 시행되지 않는 死文이긴 하나 사신의 기생 接寢禁令이 있는데 그 금령을 재확인한 史官이니 기생을 現身시켰다가 자칫 노여움을 사면 파직은 물론이요, 史冊에 길이길이 汚名을 남기게 될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貴客을 한달간이나, 게다가 할 일이 없어 무료하기 짝이 없는 손님을 방치하자니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니다. 당시의 관례로는 파격적인 결례였다.

부윤의 이러한 고민을 안 판관은 行首妓生을 불러 妙案을 얻어냈다.

전주기생 중에서 나이 어리고 아름다운 자를 가려 단장을 담연하게 시키고 흰옷을 입힌 뒤 객사 근처에서 절구질을 하라 하였다.

『翰林이 만일 네게 묻거든 관가기생이 아니라, 서울 재상집 종인데 근친하러 왔다가 친정 상사를 만나 석달째 머물고 있다고 아뢰라.』

기생은 행수기생(行首妓生—우두머리 기생)이 시키는 대로 객사 근처에서 절구질을 했고, 채 한림의 눈에 들어 불려가서는 서울 재상가의 종이라 아뢰고 못 이기는 체 끌려 밤에 오고 아침에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이 됐구나 여긴 부윤이 어느날 채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채수는 무심코 바라보다가 절구질하던 白衣女人이 금비녀와 구름머리 차림으로 끼여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부윤이 자신을 속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싶어 조금도 거리낌없이 정과 사랑을 섞었다.

成宗 때에도 이와 흡사한 사건이 있었다.

原州에 名妓가 있었는데 원주에 자나는 사신마다 그에게 매혹되어 말썽이 일어났다. 臺官이 탄핵하고 나선 것이다. 성종이 『好色은 인간의 常情이므로 함부로 탓할 일이 아니다』하였지만 간관이 굽히지 않고 『그런 일을 참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읍니까?』큰소리 치므로 그를 江原監司에 임명하였다.

그는 강원감사로 부임하자마자 말하던대로 모든 기생을 물리쳐 버렸다. 그러나 소문난 原州 名妓가 여염여자로 변장하고 일부러 말을 쫓어 監營들의 국화를 짓밟게 하자 노발대발하여 말주인을 잡아 들이라 명령했다. 잡아오니 아름답기가 꽃과 같은 여인이 아닌가.

더우기 혼자 사는 과부라서 말을 잘못 간수했다 한다. 감사는 대뜸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고 밤에 슬며시 불러들여 살을 섞게 되었다.

어느날 그녀의 집에 가서 동침하는 밤중에 어떤 사내가 문밖에서 고함을 드높인다.

감사는 다급한 끝에 여인이 시키는 대로 옷장 속에 숨었다. 사내가 달려들어 옷장을 져다 原州牧使에게 가져갔다. 벌거숭이 감사가 망신당했음은 물론이다.

이와 비슷한 우스갯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조선의 남자들은 직위가 높건 낮건 연령이 많건 적건 女色에 패배하고 만다는〈笑談〉을 만들어 실컷 웃고 자신들의 방탕을 합리화시켰다.

이러한 한국인의 관념은 당시 지도급 名士였던 세 사람의 閑談에 여실히 表出되어 있다.

鄭道傳(三峰·1337~1398)、李崇仁(陶隱·1349~1392)、權近(陽村·1352~1409)세사람이 모여 즐거운 일을 자랑하였다.

먼저 정도전이 『겨울에 눈이 처음 뿌릴 때 貂皮 갖옷차림으로 씩씩한 말을 타고 누런 개를 몰며 푸른 매를 끼고 평원에서 사냥하던 일이 가장 즐거웠지』하자, 이숭인이 『밝은 창, 맑은 책상이 놓인 고요한 山房에서 香을 태우며 스님과 마주 앉아서 茶를 달이며 聯句를 읊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했더니 마지막으로 권근이 『흰 눈이 뜨락에 가득하고 붉은 햇살이 창에 비낄 때 따뜻한 온돌방에 병풍을 두르고 화로를 껴안은 채 손에 책을 들고 누웠노라면 美人이 곁에서 섬섬옥수로 수를 놓다가 가끔 바늘을 멈추고 밤을 구워서 먹여주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하였다.

권근의 말을 듣고난 정도전과 이숭인은 입을 모아 『그대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무엇인가 일깨워 주는군』했다는 것이다. 〈太公閑話滑稽傳〉

·이러저러한 일화를 듣고 얻은 결론은 朝鮮朝의 남자들이 色無英雄烈士를 합리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타락을 합리화하고 妓房出入을 당연스레 여겼다.

그런데 한가지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 기생이 房術師였던데다가 남자들이 好色하여 그들과 자주 어울렸으니 한국의 남성들이 房術에 능해야 마땅하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한국 남성이 利己的이고 또 남성위주의 房術이어야 長生한다는 관념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 여성들은 바가지에 능숙할 수 밖에 없다.

〈다음호에 계속〉

생활의학

頭痛에 무조건 진통제 쓰지말라

高麗병원 李祥鍾 내과과장에게 들어본 頭痛의 정체와 원인

高血壓은 만성두통일으켜

머리가 수시로 지끈지끈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다. 두통은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것이나 중년기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것이 특징이다.

高麗病院 李祥鍾내과과장에 의하면 최근 두통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두통은 종류와 원인이 많으므로 면밀히 진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李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 있으면 흔히 그 원인을 가려낼 생각은 않고 일시적인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서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되도록의사의 진단없이는 약의 남용을 삼가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두통쯤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두통이 오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두통도 소홀히 다루다가 악화되어 생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두통이 지속적일 때는 속히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확한 원인이나 병명을 알아낸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頭痛의분류

두통은 처음 나타나는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돌발성 또는 발작성 두통=하루중 어느 시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급성 두통은 수시간 또는 하루나 이틀간 나타나는 경우다.

急性 일때는 大部分 熱 수반
服用前 꼭 醫師 指示 받아야

▲아급성 두통은 수일동안 나타나는 경우다.

▲만성 두통은 1~2주나 1~2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

▲잠행성 두통은 발병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점차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다.

▲상습성두통은 악화되지 않으면서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경우다.

또 두통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全頭痛(머리의 전체가 아픈것)、偏頭痛(〃반쪽만〃)、後頭痛(〃뒷골쪽이〃)、前頭痛(〃앞이마쪽〃)、側頭痛(〃옆머리쪽〃)으로 분류된다.

또 통증의 정도에 따라 은근히 당기는듯 아픈 두통, 심하게 칼로 쑤시는듯한 격렬한 두통, 혈관의 박동과 함께 아픈 박동성두통등으로도 구분된다.

그러면 어떤 질환이 어떤 두통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자.

▲급성 두통의 질환

급성중 가장 흔한 경우가 열을 수반한 두통이다.

이 경우 머리 전체가 멍하게 아프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열이 높고 두통이 함께 오는 질환에는 감기·인플루엔자·폐렴·장티푸스·류머티씨열·신장염·뇌염·뇌막염·심장병및 여러가지 중독증이 있다.

열과 무관한 두통도 있는데 그것은 연탄 가스등 일산화탄소에 의한 급성중독과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에 생기는 급성두통이다. 특히 교통사고등 충격에 의한 두통일땐 내출혈위험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조치를 받아야한다.

▲발작성 두통의 질환

돌발적인두통은 지주막하 출혈등의 뇌출혈일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강력한 두통과 함께 목덜미가 뻣뻣하며 열이 난다. 고혈압환자등에서 나타나며 신속히 의사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만성 두통의 질환

코와 눈의질환·고혈압·동맥경화및 뇌종양등 만성질환이 있을때 나타난다.

앞머리나 콧부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대체로 코나 눈의 질환에 원인이 있다. 축농증·만성녹내장·안경의 돗수변경등이 관고하다.

▲습관성 두통의 질환

당사자는 괴롭지만 질환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원인은 혈관성·심인성·근육와 긴장성등으로 나눌수 있다. 전형적인 예는 편두통—발작적으로 일어나며 머리의 한쪽이 지끈지끈 맥박이 뛰듯 아픈것이 특징이다.

두통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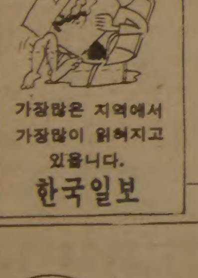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또 일시적인 증상을 가라앉히는 보조적인 약물선택도 전문의사에게 맡기는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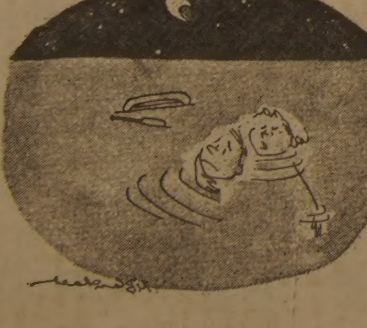
왜냐하면 진통제의 일종인 맥각제는 혈관수축작용이 있어 편두통에는 매우 유효하지만 임산부가 사용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는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

긴장성 두통의 치료는 적당한 운동, 목과 어깨의 체조, 따뜻한 찜질, 온탕, 기분전환등이 도움이 되며 약물은 보조적 치료제로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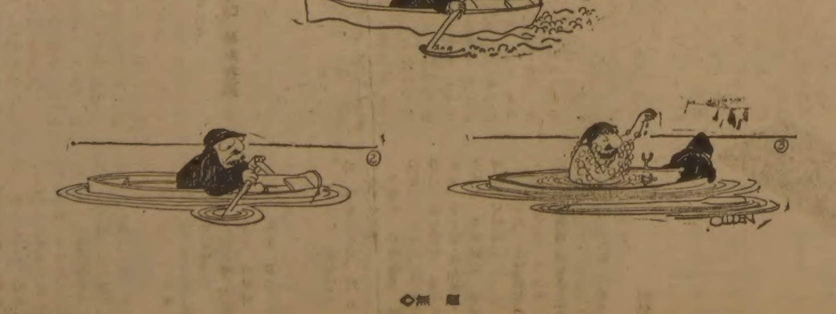
심인성 두통의 치료는 우선 고민거리를 해결하는것이 급선무이다.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 경우 약물을 남용하면 욕구불만등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海外 걸작만화



◇어쨌거나, 야밤의 보트놀이는 로맨틱한 생각이야



◇無題

나의 健康관리

韓國男

多動·多食·多眠주의… 올들어 담배 끊어

건강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현대병은 모두 운동부족때문이니까.

나는 多動,多食,多眠등 三多의 원칙을 지킨다. 평일에는 매일아침 2시간씩 테니스를 치고, 일요일은 테니스와 등산, 또는 테니스와 골프를 한다. 식사는 육식위주로 세끼를 모두 한 그릇 다 비운다. 헤비스모커였던 나는 금년들어서 금연하고 있다. 저녁식사때는 위스키서너잔을 반주로 마신다. 잠은 9시반~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정하다.

【醫博·產婦人科】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63)

지난 줄거리

춘찬은 은숙이와 패를 갈린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느날 은숙이는 주간 카바레에 들어간 서여사의 꼬리를 잡았다. 춘찬은 따라들어가 변태영업장의 낮 분위기를 익힌다. 30대 중반의 부인은 춘찬을 유혹하여 여관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춘찬은 그 여자를 변기속에 쑤셔박고 서여사를 미행하여 고수머리와 함께 든 여관방 앞에 서 있었다.

김갑산 회장이 넘겨준 정보에 의하면 서여사 남편은 박실장 내외와도 사업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박실장과 한때 하청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같이 해나간 사람이었다. 그 뒤에 박실장과 손을 끊고, 독립으로 사업체를 꾸려나가 지금은 T실업 사장으로 탄탄한 재력을 갖고 있었다.

여자 혼자 병고에 시달리는 것처럼 여자 목소리만 새어나왔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똑똑똑.

문소리가 크게 울렸다. 안에 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여자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똑똑똑.

그때서야 안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화가 난 목소리였다.

『밖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일부러 감정없이 말했다.

『누굴 찾는데 그래? 누가?』

된소리였다.

『모르겠어요. 어떤 손님이 곱슬머리 찾으며 급한 일이래요.』

『뭐라구?』

사내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인상이 험악해요. 조심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라. 너 잠깐 서 있어.』

사내는 부시럭거리며 옷을 입는 것 같았다. 여자가 뭐라고 두런거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선 고수머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에 있는 여자 좀 저쪽 어디로 감춰줘. 어서.』

고수머리는 1천원짜리 두장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받았다.

여자는 겉옷만 추스려 입은 채 속옷들과 핸드백과 스타킹을 들고 나를 따라왔다. 풀어 헤쳐진 머리칼과 열꽃이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 몹시 선정적이었다.

여자는 옆에 들뜨면 미울 수가 없었다. 정사를 벌이다 들킨 여자들을 추악하게 생각할 수가 없을것 같았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그녀에게서 강렬한 여자 냄새가 났다.

『그거 이리줘요. 이쪽에 숨기는 게 안전해요.』

여자는 엉겁결에 들고 있던 것들을 내주었다. 나는 그녀를 구석방으로 보내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고수머리가 식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려진 서여사의 물건들을 쳐다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디 갔어? 어떤 놈이 찾았어?』

나는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이 곱슬곱슬한 사내요?』

『이 자식이.』

어이가 없다는 투였다.

『내가 선생 자식은 아니잖소. 고수머리도 아니고.』

『어허!』

눈을 부라리는 건 허세였다. 나는 고수머리의 어깨를 쳤다. 고수머리가 바닥에 자빠졌다.

『너, 유부녀 간통죄로 고생 좀 해야 쓰것다.』

『이 새끼가.』

그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다.

『다 큰놈이 귀엽게 노는구나.』

『너 죽인다. 움직이지 마!』

『임마, 여기가 카바레인줄 알아? 칼춤도 카바레에서 추나?』

『움직이면 찌른다.』

고수머리는 칼을 휘둘렀다. 칼솜씨가 무디었다. 칼차고 다니는 사내치고 너무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형씨, 그래가지고 고기 한근이나 썰겠소? 칼 이리 내놓으시지. 괜히 손가락 베지 말고.』

『이게, 죽인다. 정말!』

고수머리가 칼을 드는 순간 나는 연구리를 걷어찼다. 사내가 데굴데굴 굴러갔다.

떡살을 끌고 침대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기 죽은 사내가 내게 빌었다.

『한번만 봐줘요. 잘못했읍니다.』

『너 제비족이지?』

『아닙니다. 놀러왔다가 그냥… 저 여자가 하두 사정하길래….』

『저 여자 알아?』

『잘은 모릅니다. 서여사라는 것밖에.』

이봐, 그런 칼솜씨 가지고 어디 고기 한근이나 썰겠소
놀러왔다 그여자가 하두 사정해서 한번 춘것 뿐이예요

『몇번이나 이 짓거리 했어?』

『두달밖에 안됐어요. 정말입니다. 풀어보세요.』

『너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냐?』

『뭐, 대중없어요.』

나는 다시 한번 고수머리의 어깻죽지를 후려 갈겼다. 고수머리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얼마 받느냐고 물었다.』

『이만원도 받고 삼만원도 받고 대중 없어요.』

『침대 밑에서 안나올거냐?』

『네, 나갑니다.』

녀석은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몇살 처먹었냐?』

『서른 다섯입니다.』

『처 자식은?』

『네,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 셋입니다.』

『네 마누라야 우리 마누라야?』

『아, 네에… 내 마누라요.』

『다른 직업 있어 없어?』

『지금은 놀고 있읍니다.』

『저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진짜 잘 모릅니다. 남의 부인이란 건 알지만.』

겁 먹은 목소리였다.

『너 뭐 먹고 살아?』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 않으면 다시는 춤 못추게 해주지.』

내가 고수머리의 발목을 잡아 주먹으로 한대 쳤다. 고수머리는 침대에 모로 자빠져 발버둥질을 했다.

『어떤 여자한테 돈 울거먹고 있는지 바른대로 대!』

고수머리가 고통스러운 듯이 소리질렀다. 발목의 혈을 쥐어 내던졌다. 고수머리가 방바닥에 길게 누워서 가쁘게 숨을 쉬었다.

『하겠읍니다. 할께요. 이것 좀 풀어줘요. 할께요.』

『얘기하면 풀어 주마.』

『송여사요. 저 청계천에서 A상사 사장하는 P사장부인요.』

『또.』

『임여사라고 남대문 H상가 주인여자요.』

『빨리 빨리 말해.』

『풀어 줘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죄다 말할게요. 제발요.』

나는 녀석의 혈을 풀어주었다. 그러고 볼펜 한자루와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여기다 명단을 다 써라. 네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 번호도.』

고수머리는 체념한 듯이 울상을 지으며 내가 시키는대로 써내려갔다.

『주민등록증 내놔봐.』

고수머리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녀석이 쓴것과 대조해 보았다. 틀림없이 제대로 써 있었다.

『어쩌지 너무 순순하게 불어대는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느냐?』

『감출 것도 없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주민등록 이리 내놔.』

나는 주민등록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녀석이 재빨리 방문을 걷어차고 나갔다. 내가 뒤따라 뛰었다. 녀석은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에서 아래층으로 겅중 뛰었다.

은숙이가 주먹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소리없이 웃었다. 은숙이 옆에 서있던 녀석이 한발짝 앞으로 나갔다. 고수머리가 은숙이쪽으로 뛰었다. 녀석은 쓰러졌다. 은숙이가 한방 내려쳤기 때문이었다.

『끌고 들어오슈.』

은숙이가 고수머리의 뒷덜미를 잡고 올라왔다.

『이 주민등록증 가짜지?』

나는 사진자리를 교묘하게 떼어내고 사진만 바꿔붙인 것을 내보이며 물었다. 고수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네 뿌리를 뽑아주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녀석을 침대에 눕혔다. 양말 속에서 칼이 한자루 더 나왔다.

『너, 본전 생각 나게 해줄테니까 비명이나 맘 놓고 질러라.』

나는 녀석의 발과 허리를 잔뜩 휘어 침대 모서리와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녀석은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바른대로 쓸테냐?』

『네, 쓰겠읍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두번 다시 속이면 맘대로 하세요.』

고수머리는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여자들 계속 울궈먹을 거냐?』

『아닙니다. 다시는 연락도 않고 이런데 나오지도 않겠읍니다.』

『서여사도 갖다 바치는 여자지?』

『아닙니다. 어디 사는 여잔지 아직 못 알아냈읍니다.』

『왜?』

악바친 여잔 혀 깨물고 죽는한 있어도 입을 안여는거야
서여사,당신의 속옷을 보관하고 있으니 만나 주시겠오

『너무 용의주도해서 그랬읍니다. 택시 타고 정신없이 돌다가 바꿔 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비교적 쉽게 넘어가던데요.』

『너 콩밥 좀 먹을래, 아니면 발 딱 끊고 그런 짓 그만둘래?』

『다신 이 짓 않겠읍니다.』

『그걸 뭘로 믿어. 임마.』

『정말 믿어주세요.』

『발 딱 끊는다는 조건으로 네 발목 좀 손보자.』

『제발 봐주세요. 정말 다시는….』

『엎드려 자식아. 네가 고통을 준 여자들 생각 좀 해봐.』

나는 고수머리의 발목뼈를 비틀어 이완시켰다.

『두어달 동안은 춤추고 싶어도 안될거다. 그 뒤에 우리 애들 눈에 뜨였다간 아예 서서 다닐 생각 말아라.』

나는 녀석의 상판대기를 필름에 담았다. 헌칠하고 깔끔하게 생긴 용모였다. 고수머리만 아니라면 텔리비전에 출연하는 배우 정도는 쩜쪄 먹게 생겼다.

『명심하겠읍니다.』

나는 녀석의 엉덩이를 차서 내쫓았다. 녀석은 절룩거리며 나갔다.

『임마, 침 맞을 값은 받아가야 할거 아냐.』

『괜찮습니다.』

나는 녀석의 주머니에 만원짜리 몇장과 아까 내게 내민 천원짜리 두장을 내주었다.

옆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서여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뒷문으로 도망간 것 같았다.

『내가 놓쳤으면 난리 쳤겠죠?』

은숙이가 물었다.

『일부러 놓친 거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일부러라뇨?』

『여잔 악바치면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입을 안 열어요. 점잖게 차리고 귀부인대접 해가며 고상한 자리에서 만나야 열게 돼있어요.』

『이젠 어쩔 셈인데요.』

『전화 걸어서 핸드백하고 속옷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호텔 코피 숍에서 만나는거죠. 그러면 죄 털어놓게 돼있어요.』

『수사관을 하시지 그랬나봐요.』

『나같이 성질 급한 놈은 안돼요. 순리로 할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뒷덜미를 치는 건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어둠이 내려 깔리고 있는 거리였다. 은숙이는 배가 고프다고 했다.

『땅콩, 야채, 오징어 막 먹어치웠잖아요.』

『그거야 주전부리죠.』

『갑시다 까짓거.』

우리는 골목길을 걸어나왔다. 은숙이가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요조한 숙녀께서 드실께 마땅찮을텐데요.』

『이 땅에서 가장 품위있고 인정 있는 집이 포장마차 아녜요. 난 학교 다닐때도 포장마차집에 들어가 점심 먹고 그랬어요. 밥 먹는 것까지 폼 잡는 사람 보면 우습던데요.』

『그말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포장마차집으로 들어갔다. 국수와 꼼장어와 오징어를 시켰다. 서글서글한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 한병을 따서 내 앞에 내밀었다.

『은숙씨도 하죠?』

『대여섯병쯤은 하죠.』

『놀래라. 배갈인가 화학주인가 하는 술로 단련된 여자하곤 상종도 말라고 우리 아들한테 유언해야겠는 걸요.』

『그걸 가지고 뭘 놀래요. 맘만 다부지게 먹으면 열댓병도 하는 걸요.』

『그거 진짜요?』

『진짜죠.』

『그럼 실컷 드슈.』

『못할 거야 없죠.』

나는 입을 딱 벌리고 술을 따라주었다. 은숙이는 술잔을 입에 댈 생각조차 않았다.

『사랑하는 술인데, 좀 드슈.』

『우린 페니실린 병으로만 마셔요.』

『졌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주인 아주머니와 심부름하는 꼬마도 웃었다.

『내일 졸업식인데 어쩌죠?』

『은숙씨가 좀 맡아줘요. 식 끝나고 어머니 내려가시는 거 보구 한려면 빠듯할것 같아요.』

『나도 축하하러 갈까 그랬는데요.』

『다른 때같으면 오라고 하겠는데 이번만은 안되겠어요. 애를 빨리 찾아야죠. 연일 신문에서 떠들어대는데 범인이 급하면 애를 해칠지 몰라요. 계획대로 내일도 애들을 좀 많이 풀어요. 우리애들도 내일부터 총력전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애가 무사하게 구출되는 일이라면 좀 무리한짓을 해도 돼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김갑산 영감한테 직접 해도 돼요.』

『정말 그 가족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다기보다 가족과 연관된 사건같아서 그래요. 김갑산 영감이 말은 못하는데 그런 암시를 했어요. 다른 팀에서 좀더 많은걸 알아내게 되겠죠. 우리말고 몇팀이 더 있으니까요.』

『경찰조사와 엇갈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자꾸 그 영감이 서두를까요.』

『손자도 찾아내야겠고 자식들도 보호해야겠고 그래서 그럴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양념 그릇을 챙기다 말고 말참견을 시작했다.

『그러게 돈가지고 사는게 아니라우. 그 어린걸 왜 유괴하는지 모르겠수. 천벌을 받지, 아암 천벌을 받고 말고. 그런 부잣집에서 아쉬울게 뭐가 있겠수. 너무 돈만 밝히니까 원수지는 사람이 생기는거지. 그러거 보면 우리 팔자가 상팔자요.』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와 얼크러져 유괴범 욕만 실컷 하고 나왔다. 은숙이는 계획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들어갔다. 나는 공중전화가 앞에 서서 동전을 주입구에 떨어뜨렸다. 전화요금이 5원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1백%씩 뛰어 오르다가는 금방 백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전화 거는 비극적 시대가 올것 같았다.

꼬마들한테 백원짜리 동전 한개만 줘도 펄펄 뛰는 때가 그리웠다. 요즘엔 백원짜리 한개 줬다간 파출소에다 갈취신고할지도 모른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나라엔 없다고 생각할테니까 말이다.

『서여사세요. 저는 서여사의 핸드백과 속옷과 스타킹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만나주시죠.』

『뭐라구요? 댁은 누구세요.』

나는 떡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서여사는 놀란 말처럼 뛰었다.

『길게 설명하면 피차 피곤잖겠읍니까. 지금 좀 나오시죠.』

『여보세요. 제발… 왜 이러십니까.』

『여보세요. 왜 이래요.』

『남편 회사로 부치란 말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우리는 전화로 한참 동안 입씨름을 했다. 처음엔 버티다가 나중에는 애원도 했다. 그래도 안되니까 사정을 했다.

『오늘은 정말 안돼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밤비행기예요. 그러니 내일 만나죠.』

나는 할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식을 미국에 보내는 마당에 억지로 불러낼 배짱이 없었다.

밤 늦게 집으로 왔다. 내일은 졸업식이었다. 우리 어머니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작을 완료하고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이놈아. 그래 이놈아. 장하다. 아암 장하고 말고. 가르친 보람이 있으니 이 에미가 살맛이 난다. 느이 누나한테 다 들었다.』

은주누나가 눈을 찡긋해 보였다. 은주 누나를 친 딸처럼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그만큼 은주누나가 눈안에 든 것이었다. 나도 은주 누나가 여러가지로 도와줘서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게 됐다고 너스레를 떨어두었었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잘 것 같지 않았다.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이었다. 나 하나 믿고 사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겠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S A PAIN IN THE NECK.

R. N. 시험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간호원 아파트에 역시 발표를 기다리는 미국인 간호원 지망생 친구가 놀러 왔다. 시험에관한 대화 도중에 미국인 친구가 It's a pain in the neck.이라고 하자, 목에 pain (통증) 이 있다고 오해한 고포 간호원이 Is it serious? (심하니?) 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It's a pain in the neck.이란 싫지만 할 수 없이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It's something one doesn't like but must be endured anyway)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그 미국인 친구가 한 얘기는 「시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는 Waiting for somebody is a pain in the neck.라고 하며, 매일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이 꺼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할 때에도 It's a pain in the neck. 이렇게 하면 된다.

It's a pain in the neck.을 줄여서 It's a pain이라고도 하며, 같은 뜻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는 It's a drag가 있다. 「일요일인데도 근무를 해야되는것은 정말 지겨운 일이다」를 말해본다면 It's a real drag when I have to work Sundays. 이 같이 하면 된다.

A : Is Janice working overtime tonight?
B : Yes, because the second shift person is late.
A : Does she get paid for it?
B : No, she doesn't.
A : That's a real pain in the neck.
B : She doesn't want to do it, but she has to.
A : 제니스가 오늘밤 오버 타임하나요?
B : 네. 2교대조。사람이 늦었기때문이죠。
A : 시간외 근무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되나요?
B : 아니요。
A : 정말 지겨운 일이군요。
B : 그녀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되지요。

※endure:견디다.참다
overtime:규정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shift:근무의 교체,교대조
R.N.:registerd nurse (등록된 정식간호원)

IT'S UP TO YOU.

6시에 만날까요? 아니면 7시에 만날까요? 이같이 물어왔을때「당신한테 달려있읍니다」저녁식사를 한국식당에서 할까요? 아니면 미국식당에서 할까요?「당신한테 달려있읍니다」이런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It's up to you.이다. up to란~에게 달려있다 란 뜻으로「거기 가고 안가고는 그여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하고 싶을때는 It's up to her.라고 하면된다. 또한 up to란~에 종사하다의 뜻도있다。예컨대「그는 무엇을 하고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What's he up to?역시 자주 쓰이는 영어의 표현이다。

up to는~에 이르기까지라는 뜻도 있다。up to now 하면 지금까지의 뜻이고 up this point는 이점(여기)까지의 뜻이다。허물없는 사이의 일상회화중에 What's up?이라는 표현도 자주 듣게된다。미국인 친구에게 What's up?해보라。그러면 대부분 Nothing much. (별일 없다) 라고 대답할것이다。이경우의 up은 무슨일이 일어나다의 뜻이나 What's up?은 「별일없나?」정도의 인사말이다。

A : Are you free next week?
B : Yes.
A : Will you have dinner with me?
B : Yes, I'd like that very much.
A : Shall we have Korean food or American food?
B : It's up to you.
A : 다음주에 시간이 있으세요?
B : 네。
A : 저하고 저녁이나함께하실까요?
B : 네。기꺼이 응하겠읍니다。
A : 한국음식으로할까요, 아니면 미국식으로 할까요?
B : 선생님에게 달려있읍니다。

【발음】next week:next가 문장속에서 회화로 발음될때는 t가 파열되지 않기때문에 「넥쓰」, week도 「위크」할필요없이 「윅」결국 「넥쓰 윅」으로 발음된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67－5605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중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건축·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BLOOR ST. W. TOR. ONT. M6G 1L4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지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流星의 賦

<31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⑯

수길은 대명정벌군(大明征伐軍)을 일으키는 기일로서 1592년(선조25년) 3월1일을 잡았다. 이계회에 따라 동년 1월5일 수륙침략군(水陸侵略軍)의 편성을 완료했다.

육군은 1번대에서 16번대까지로 하고 이에 수군(水軍)은 따로 책정했다. 그리고 별동대(別動隊)로서 번외 1、2대와 본영 친위대(本營親衛隊)를 두었다.

이렇게해서 병력은 도합 28만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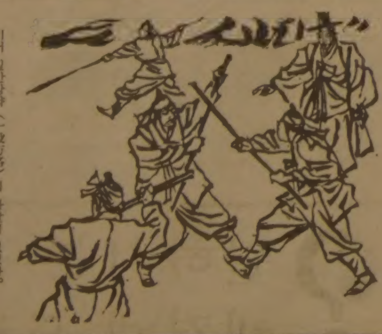
선봉부대는
제1번대 소서행장(小西行長)
제2번대 가등청정(加藤淸正)
제3번대 흑전장정(黑田長政)
제4번대 모리길성(毛利吉成)
으로 편성되었는데、각대가 그들의 거성(居城)에서 나고야로 집결하는 날짜를 세밀하게 지시했다.

1월8일 가등、흑전、모리등에게 수길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

『소서행장에게 조선에 사신(使臣)으로 가도록 명했으니 그 회답이 있을 때까진 일기와 대마도에 머물러 기다려라.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진 일병(一兵)도 조선에 보내지 말라』

그런데 수길은 곧 명령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앞서 종의지와 소서행장의 상신이 있어 사신을 조선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시일만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구주、사국、중국의 병력은 즉시 조선땅으로 건너가게 한다. 또 관동、동북의 군사가 서하(西下)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으므로 나의 출발을 연기하고 덕천(德川)과 전전(前田)을 먼저 나고야로 보낸다』



이어 일반방략(一般方略)의 하달이 있었다.

①모든 부대는 이미 지시한 바 있는 서열대로 조선으로 향하라. 순풍(順風)이 없을 때는 맑은 날씨를 기다려 도서(島嶼)에 따라 건너갈 것이다. 만일 일기가 불순할 때에 건너가서 일병일마(一兵一馬)라도 상실하거나, 또는 순풍인데도 건너가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하면 그 과실은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라.

②말(馬)은 도선(渡船)한 직후 공사를 실시할 동안엔 불필요할 것이니 병원이 모두 상륙한 후에 양륙(揚陸)토록 하라.

③위에 들먹인 군사 외엔 모두 나고야에서 머물러라. 만일 이를 어기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엄벌할 것이다.

④이번 출정엔 선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선박을 다수 준비한 자의 공을 가상한 것이니라. 모든 선박을 기록하여 후나부교오(船奉行=船參謀)에게 바치고 그 지시를 받은 다음 건너가라. 상륙이 끝나면 각대의 선박에 관리인 하나씩을 [illegible] 대마도로 돌려보내서 후속 부대가 이용하도록 하라.

⑤조선왕(朝鮮王)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순차적으로 상륙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부근도서에 전군을 집결하여 전군(全軍)이 합의한 후에 이미 마련된 서열엔 구애됨이 없이 조선의 여러 포구(浦口)에 일시에 상륙하여 진지를 선정하고 축성 공사를 견고히 하라』

이 명령과 동시에 수길은 4만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선박을 대마도와 일기(壹岐)에 배치하도록 했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Full Time)
☎531－2689

입주하셔서 두어린아이(2년, 1년) 보아주실분 구함. 직장부부.
☎266－0801, 751－3189

도너츠 샵 급매(토론토지역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역)
주매상 : $3,000, 아스킹 : $85,000
☎ : 783－5454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박)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Kim's Beauty Salon
(1)Manager ☎ : 532－7094
(2)Hair Stylist Net : $1,500/Mon.

매매및 양도

Store for Sale 또는 매니저 구함.
주매상 : $3,500 렌트 : $650
리스 : 4년+5년 Option
현금다운페이 : $7,000(매니저의 경우 2,000Deposit)
☎ : 1－(514)637－6444 (몬트리올 지역)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George town
○작년도 매상 $270,000
○로타리오 년 $8,000(순이익)
○공중전화 년 $600
좋은 리스. 렌트 600불
☎ 1－877 6463 Mr. 김 883－4550 김영찬

드라이 크리닝
①년매상 : $160,000(3베드룸 아파트 포함)
②년매상 : $127,000(리스가 오래됨)
③년매상 : $160,000(오렌지·빌 지역)
아스킹 : $75,000
☎ : 275－5555(데이브·랄)
Export Business, Realtor

성업중인 Flower Shop 매매
3901 Bathurst St. ☎ : 635－9794

하드웨어 스토어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illegible]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가 게 급 매
주매상 현재 $8,500 개런티
(로타리오 머신 별도)
건물및 상점
꼭 사실분 내방바람 $229,50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바쁜지역의 건물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oyal Trust Co.
(1)쾌적한 4베드룸 포함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관광중심지역
년매상 : Over $400,000
넓이 : 2200Sq. ft. 아스킹 : $149,000+스탁
(1)작은 도시에있는 Convenience Store
매우 깨끗하고 전망좋은 모퉁이에 위치한 4베드룸 아파트(2개의 차고)
아스킹 : $114,900+스탁
가족끼리 운영할수있는 좋은기회.
(3)21 Unit Motel.
면허있는 식당과 별개의 카테지(3베드룸 벽돌집)
Color T.V. 냉·난방장치 갖춤.
평균 객실점유률 : 60%
년매상 : $157,000 아스킹 : $550,000
Royal Trust Coopertaion of Canaba, Realtor.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Mr. Irven DeGraw.
(B)705－325－6193, (R)705－325－6069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사무실·점포 렌트

DUPONT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 려 식 품 ☎ : 531－2242
680 Bloor St. W. Tor.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휜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김봉균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일 오후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운전학교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양 장 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 한국일보 안내광고 *